

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골짜기를 헤매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 본받아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접근

아틀란틱, '2019 WSJ/NBC 미국인 정체성 설문 결과 따른 원인분석과 전망 제시'

지난 1998년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는 18-38세 미국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가장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work ethic)'을 꼽았다. 이어 애국심과 종교, 그리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21년이 지난 2019년, 같은 연령대 미국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답변은 21년 전과 아주 달랐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10%p 낮아졌고, 애국심이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무려 20%p나 낮아졌다(Americans Have Shifted Dramatically on What Values Matter Most: Patriotism, religion and having children rate lower among younger generations than they did two decades ago, WSJ/NBC News survey finds).

하나님, 국가 그리고 가족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을 든든하게 받던 다리와도 같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핵가족, 신앙,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젊은 세대에겐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뚜렷하게 변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바나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가지 않는 미국인이 2011년에는 59%였지만, 2019년에는 64%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사 전문지 '아틀란틱'은 미국인을 미국인 되게 하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 국가, 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소위 전통적 미국인의 존재론적 위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Elite Failure Has Brought Americans to the Edge of an Existential Crisis: The nuclear family, God, and national pride are a holy trinity of the American identity. What would happen if a generation gave up on all three?).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뿐 아니라 서구 사회를 떠받쳐 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와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젊은이 가운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30세 이하의 종교인이 전체 종교인의 1/3을 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다. 1970년대부터 유럽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문화권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비중이 자연히 희석된 것이다.

그러나 무신론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한다. Z세대까지 갈 것 없이 밀레니얼세대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16%로, 베이비붐 세대(6%)보다 3 배 가까이 높다. 유대교와 기독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가치가 서구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면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종교적 가치관의 변화는 서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수준의 변화다.

특히 가치관이 변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의견을 지닌 세대가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세대가 급격히 관심을 잃은 애국심, 가족, 종교는 모두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지탱하던 가치다. 이 3가지는 또한

와 의견이 다른 건 물론이고, 그 세대가 젊었을 때 보였던 의견과 비교해 봐도 현재 젊은 세대의 의견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2012년 선거 때 공화당이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유권자들에게서 받은 득표율은 지난 50년 사이 해당 연령대 득표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몇몇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이 대변하는 가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단지 기독교적 가치나 애국심만 진부하다고 여기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양당제 자체를 거부한다. 스스로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제33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남가주 미주한인교회 정기노회 일제히 개최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KPCA 서노회, PCA 한인서남노회, CRC 한미노회

남가주지역 미주한인교회 정기노회가 일제히 개최됐다. KAPC LA노회, KPCA 서노회, PCA 한인서남노회, CRC 한미노회 소식은 다음과 같다.

백현 목사 노회가입, 김만수 전도목사 허락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성일 목사) 정기노회가 10일 오전 10시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오세훈 목사)에서 열렸다.

성기전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 예배는 기도 김현인 목사(남가주 든든교회), 설교 김성일 목사, 성찬예식장 박대원 목사, 축도 오세훈 목사로 진행됐다.

김성일 목사는 '하나님 중심'(시 23:1-6) 제목의 설교에서 "생사의 길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목회만 하십시오"라고 강권했다.

이어 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는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새생명선교교회 김만수 담임목사 사임과 함께 백현 목사의 청원과 노회 가입청원이 허락됐으며 김만수 목사의 전도목사 청원이 허락됐다.

또한 동문교회 김광삼 목사의 노회 탈퇴 건은 본인의 소명을 위해 한 회기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학교 노회 파송 이사 요청의 건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9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2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인터뷰 최창웅 목사	16면
---	---	--	-----

ATS와 ABHE 공인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행복예수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발행인 칼럼

그 일을 마치리라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일기장은 길고 길었다. 그 긴 일기 중에 분명하게 남아있는 구절이 있다. "vision을 담은 건물은 지으라"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전건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벽기도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곧 당회와 중직자 모임을 열어 "vision을 담은 건물은 지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었다. 건축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길고 긴 시간이 흘렀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새성전 착공-완공이 아니라-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동기(動機)로 시작되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일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닮기 원한다면 시작한 일에 끝을 꼭 보아야 한다. 스톱바벨이 그랬다. "스톱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 일을 잘 마치시는 멋진 사람이신가, 아니면 하다말고 반복하시는 슬픈 인생이신가. 다른 것을 몰라도 나는 끝을 잘 못 마치는 것이 있다. 유독(惟獨) 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운동이 그렇다. 작심(作心)하고 끊었던 두 달 짜리 피트니스(fitness) 회원권이 지갑에서 울고 있다. 꼼꼼이 분석해 보았다. 시작한 운동을 왜 번번이 끝을 못 내는지. 그 분석 결과는 이렇다. 운동은 나의 우선순위에 한참 멀리 있기 때문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그마한 핑계거리가 있으면 항상 먼저 신나게(?) 제쳐놓는 것이 운동이다. 건처사우재(建妻事友財)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건강이 있어야 아내도, 사업도, 우정도, 재물도 의미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하다말다의 반복하는 운동의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니 다시 운동복을 챙겨 보려고 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시작한 성전건축을 마치려는데 큰 산이 스톱바벨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었다. 그는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십자가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영광을 크게 보셨다. 그래서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었다. 한국에서 어렸을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1차, 2차, 3차 계속 되었던 것을 보아 어려움 가운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이 잘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 아픔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려는 큰 가치를 향한 정책의 일관성은 있었다. 요즈음의 정책은 어떠한가. 독심 있게 밀어붙이는 일관된 정책을 찾기 어렵다. 여론이란 장애물, 정파의 이해관계라는 장애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의 장애물 등으로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교회와 학교와 병원 등을 아낌없이 지어준 나라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아들을 기쁘게 받아준 나라다. 우리나라의 독립, 전쟁, 민주화, 경제개발 등 모든 영역에 함께한 선한 친구요 끝까지 같이 가야 할 동맹이다. 이런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희미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세워 제쳐놓거나, 동맹의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 나라의 일이나 외교의 일, 물론 교회의 일도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 "그 일을 마치리라"는 말이 이제는 강력한 삶과 온전한 인격으로 맺어야 한다.

질문 하나로 마음을 얻는다!

리더십저널, CNN 간판앵커였던 프랭크 세스노의 '좋은 질문 만들기' 노하우 제시

소그룹 사역자라면 소그룹의 역동성을 높이는 부분에 관해 누구나 관심 있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인도자는 질문 유형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한다. 가령 다락방 식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있고, 구역 지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확인하고 싶은 질문도 있으며, 때로는 목장 식구의 삶을 공감하기 위한 질문도 있다.

CNN의 앵커이자 인터뷰어로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콜린 파월 등 저명인사들의 인터뷰를 도맡아 하며 수십 년간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프랭크 세스노를 통해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물론 이 질문이 모든 상황에 맞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개인 차원에서 중대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할 때,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진단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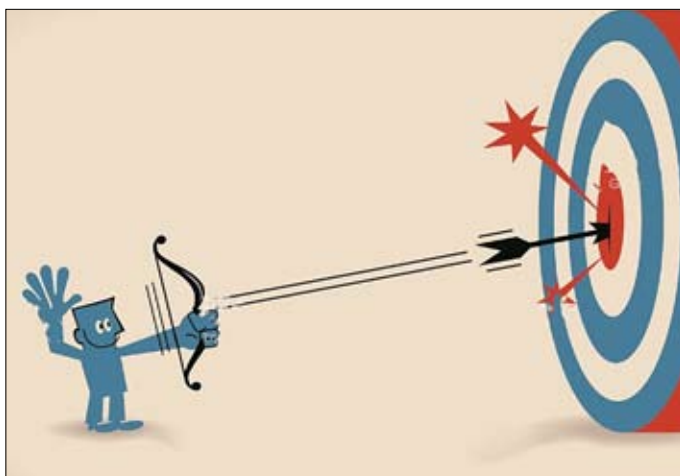
진단형 질문은 어떤 증상이나 상황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기본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증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물어야 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 겉끄러워도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요하다. 새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 과거는 변치 않는다. 그런 과거를 진단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전략형 질문



는가? △자기부인을 토대로 한 사역 정책인가? △이 조치의 예상 결과를 철저히 검토했는가? △명확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가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인 출구전략은 마련해 놓았는가?

소그룹 인도자는 이와 같은 진단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략형 질문을 마

3. 공감형 질문

공감형 질문이란 사람들에게 행동, 생각, 공포, 감정 등이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탐구하는 질문으로, 사심 없이 상대방을 조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공감형 질문으로 상대방이 꼭꼭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내,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며, 해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공감형 질문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한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상대방에게 여유를 줘야 한다. 먼저 폭넓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익숙한 토대 위에서 공감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단형: 나쁜 소식부터 묻고 과거 돌아보도록

전략형: 위험요소, 기회비용, 예상결과, 대안은 무엇인지

공감형: 상대방 입장에서, 눈높이 맞춰 질문

그리고 최대한 '참견쟁이'가 돼야 한다. 진짜 문제를 파악하려면 성도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 내도록 "현재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는 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등과 같은 내용도 서슴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진단형 질문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나쁜 소식부터 따져 묻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질문을 들은 성도는 상황의 급박성을 알고, 사안을 그냥 피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진단형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지나간 과거도 돌이켜보게끔 질문하는 것도 중

요하다. 진단이 끝났다면, 이후 어떤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전략형 질문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위험 요소, 기회비용, 예상 결과,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린 파월은 큰 그림을 위해 8가지 전략형 질문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천, 특히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전략형 질문을 제시해본다:

△교회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가? △성도는 이 조치를 지지하는가? △세상에서도 진정성 있는 지원을 두루 받고 있는가? △위험 요소와 비용을 정직하고 철저히 분석했

련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전략형 질문을 소개한다:

△당신은 제자로서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사역을 감당할 열정이 있는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에 조직력이 있는가? △가족들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다. 셋째, 대화가 깊어질수록 말뿐만 아니라, 신호, 어조, 분위기 등을 포착해야 한다. 말하다가 잠깐, 멈추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모두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친밀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형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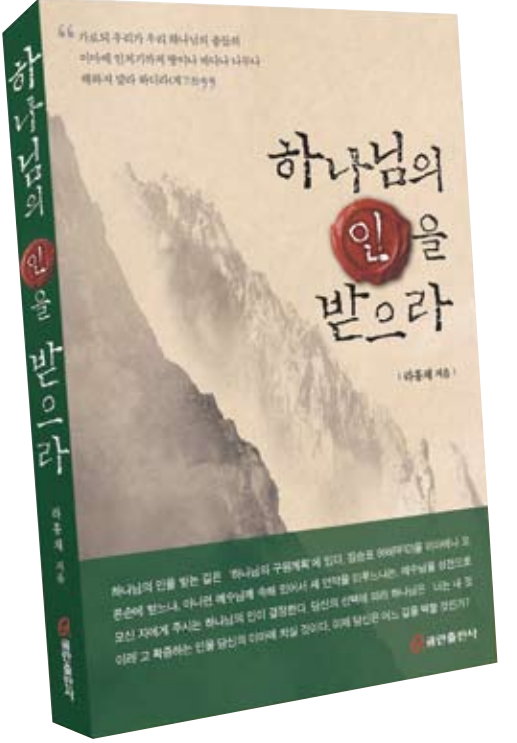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동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접근

<1면에서 계속>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쪽을 더 편하게 여기거나, 어디에 소속되는 걸 분명히 거부하기도 한다.

환경보호주의자(environmentalist) 같은 타이틀도 거부하는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걸 보면 당위적인 가치도 자신을 규정하는 분류표가 되는 걸 반기지 않고 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낮고,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 노조나 실리코밸리, 연방정부, 언론,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3이 채 되지 않았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불신하는 권력기관은 대부분 상위층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젊은 세대의 불신은 사실 10년 전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더딘 회복세를 고려하면 꼭 계급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리 있는 반응이며, 아주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 대학생들의 격정이나 치기어린 분노' 정도로 취급하는 전문가라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대가 느낀 경제적 무기력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젊은 세대의 범죄율은 그 연령대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 한 마디로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하고, 시키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체제에 순응하며 자란 세대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앞에 놓인 미래는 어떻게? 빗만 잔뜩 쌓은 채 사회에 나와 보니 임금 은 적고 아예 이 세대에 허락된 자신이 거의 없다. 존재의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할 수 없는 시대의 격랑 속에 보호막 없이 내쳐졌다.

밀레니얼세대는 자고 나면 이 세상을 떠 버치던 기동이 하나씩 송두리째 뿌리뽑혀버리는 걸 보며 자랐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세상을 휩쓸어 버리곤 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지만, 반대로 그런 무기력한 개인이 무기력함을 표현하고 퍼 나르는 건 너무 쉽다. 소셜미디어가 좀처럼 우리를 모두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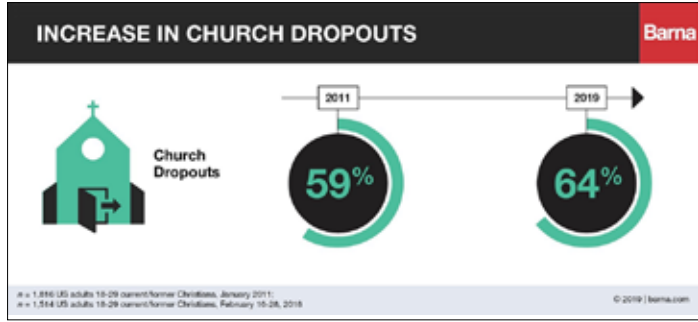
스틴, 시카고, 필라델피아 근교에 사는 백인, 흑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터뷰 대상이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들의 견해와 가치관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더 높으며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전혀 달라 보인다. 투표 성향도 정반대였다. 백인 노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지층이었다. 젊은 세대는 트럼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유권자 그룹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저소득층 노동자들과 젊은 세대

이 비율이 대학 졸업장이 있는 백인들 사이에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물론 종교에서 등을 돌린다는 게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주말마다 교회에 가지 않고 대신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파편적인 종교적 상징물이나 해석을 찾아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한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버려버린 데는 이른바 엘리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논문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어렸을 때 믿고 따르던 종교를 버리게 됐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비



밀레니엄/젊은 노동자 세대, 하나님, 국가, 가족 외면 기독교가 존재론적 위기에서 희망 쬐야

하나님이며 국가가 과연 개인에게 얼마나 위안을 줄 수 있을까? 젊은 이들은 #BurnItAllDown이라는 해시태그로 답했다. "다 때려치워"라는 뜻이다.

가치관의 변화가 대학교육을 받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로 국한할 수도 없는 일이다.

프린스턴대학교의 캐서린 에딘, 티모시 벨슨,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앤드루 철린, 위트워스대학교의 로버트 프랜시스 등은 2000-2013년 14년에 걸쳐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고령의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를 올봄 논문으로 발표했다. 보스턴, 찰

스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는 놀랄 만큼 비슷하다.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였더라도 노조 조직률이 높은 가운데 급여도 안정적이었고 퇴직 후에는 연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모든 게 열악해진 자신의 상황에 좌절해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기존 종교에 등을 돌렸다. 이들이 종교에서 이탈한 속도는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보다 더 빨랐다. 미국에서 실제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줄었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

나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프랜시스 등은 노동자 계급이 엘리트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양상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엘리트 정치인을 향해 묶어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한 현상이다.

또한 저소득층 남성 노동자들은 핵가족의 가치도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양상은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혼인율은 교회에 가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낮아졌다.

<4면으로 계속>

질문 하나로 마음을 얻는다!

<2면에서 계속>
라는 질문했다고 가정해본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라는 질문을 이어간다면,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는 실마리를 얻는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얼굴을 관찰하면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후 "요즘 제일 걱정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한다면, 복잡한 심리상태까지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려고 하면 안 된다.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기본이 될 때, 상대방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것이며, 현재의 소그룹을 안전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처럼 소그룹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질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인도자의 이런 상황 판단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에 맞는 질문을 한다면, 소그룹은 더욱 역동적으로 흘러갈 것이며, 사람들은 소그룹을 사랑하게 된다.



시론

불안한 모국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김인환 목사
(전 총선대 총장)

작은 단체나 큰 단체의 최고 책임자는 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 경우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분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헌법에 따라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임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 동안 위임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청지기적으로 행사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지 비록 그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대통령을 선임하기 때문에 일단 선임된 대통령도 자신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대통령 역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주권도 위임받은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 헌법과 헌법에 기초한 각종 법률을 자신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존엄하고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위임된 국민의 주권이 허락한 권력을 자신의 정서와 주관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권력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자유당 시대와 군부독재시대를 살아보았지만, 이들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소위 운동권 세력이 통치하는 시대가 과거보다 더 불안하고 예측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운동권의 천하무적 독재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의 예술과 낭만도 가끔씩 느끼게 만들어주었고, 국민들의 의지를 살피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는 같은 계열이면서도 국민들이 무어라고 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해치워버린다. 그렇게도 국민들의 절대적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거역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므로 문재인 정부와 그의 추종세력의 독재적 권력행사가 극치에 이르렀다. 그들이 과거 그렇게 지독하게 생명을 내걸고 비판하던 일들을 그들은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 그들의 비판 대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그들이 잡은 권력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들의 파티를 열고 마음껏 즐기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 과거 80년대 운동권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한 한 인사가 문재인씨가 정권을 잡을 때 그 세력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미처 달성하지 못한 북한과의 연방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만을 걸어갈 것이라 예측했는데 지금 이들의 통치는 그의 예측 그대로 이루어져감을 목도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허물어져가는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와 파탄이 나는 경제에 대한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로지 북한과의 좋은 관계만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실상을 보면서 지금 전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라가 잘못되어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이웃나라의 역사적 전례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끼면서 모두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고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과 가치 및 세계관을 지키고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확장되도록 하기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 톰

우리 교회 근처에 톰이란 분이 살고 있다. 그분은 일명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란 별명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여자

분과 사는 분인데 알래스카 허스키 종의 개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 붙여진 별명이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교회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너무나 우리 교회를 힘들

게 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자기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해친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회 댐을 교회 앞에 위치한 공원 앞에 세워두면 곧바로 교통경찰을 불러 딱지를 떼게 하였다. 그분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댐을 세워두는 것만 보면 곧바로 경찰을 불러 그런 일을 하였다. 그래서 하룻밤에 딱지를 한 차에 세 개나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댐이 5대였고 주차장이 없어 공원 앞에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되었으니 한 달이면 교통위반 티켓을 수북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그렇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어도 우리 교회 댐이 상용이 아니고 교회 차라

고 증명하면 벌금을 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북이 들어온 벌금 통지서를 한 장 한 장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서 정말 피곤한 일이었다. 아예 직원 하나가 그 일에 붙여살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분이 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기도하기도 했지만 꾀째도 않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교회와 친하게 되어 교회를 돕는 자로 바뀌기를 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부터인가 그분이 교통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한 달 내내 교통위반 딱지가 한 장도 붙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어와나에 그분의 자녀를 초대하였기 때문임을 알았다. 그분의 딸은 특별히 한류로 인하여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교회의 초대에 응하여 어와나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 그 개를 끌고 다니는 톰 아저씨는 교회를 대하는 눈이 달라졌고 나중에는 아주 협조적인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교회 주변에 다른 상용차들이 세우게 되면 곧바로 고소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주차 자리를 쉽게 찾는데 일조하고 있다. 몇 년을 애를 먹었던 그

분의 변화를 보며 느낀 점이 있었다.

첫째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원수는 나를 돕는 친구가 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없는 진리나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원영호 목사

(새장로교회)



요즈음은 시대가 많이 혼탁해져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상식과 비상식이 구별이 안 되는 혼란 속에 사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절대적인 기준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의이고 정의이고 선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져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군중이 그런 혼란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판단하거나 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절대 가치관의 파괴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에 대한 관심과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있느니라'(롬11:5). 오늘날 '남은 자'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거룩한 길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고집이 세서 끝까지 우기고 거기에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고집하면 생각나는 성씨가 있습니다. 안씨, 강씨, 최씨가 고집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고집의 대명사가

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관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소수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남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과연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스스로 먼저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쓴 소리를 하고 남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길을 가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좀 지혜롭게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기에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공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19:18).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남은 자를 필요한 곳에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국 선교사에 보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 중에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에서 남은 자로 섬겼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던 나라인데 마음에 품고 32살이 되던 해에 미혼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을 받아 캄캄한 미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자신은 어머니한테 1살 때 버림을 받고 할머니에게 맡겨져 키워졌지만, 그리고 48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가서 낳아준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가 "네 몰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 꺼지라"는 말로 두 번째 버림을 받는 아픔을 받았지만, 그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면서 수양딸을 13명을 길러냈습니다.

한복에 고무신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 특히 나환자들을 섬겼던 그녀는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남긴 것은 담요 반 장, 동전 7원,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이었던 담요를 반 장을 다리 밑 거저들과 나누었기에 반 장이 되었고, 본인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 땅에서 22년간 보리밥에 김치 먹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분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회복을 실천한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회복시켜야 할 일과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땅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남은 자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 가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했고, 남편의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1장 4, 5절

1. 남은 자란 누구일까요?

원래 '남은 자'란 뜻은 '어떠한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이란 뜻으로 성경에서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패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끌려간 후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였고, 스바야 선지자는 '겸비하여 주를 찾는 자'라는 정의로 남은 자를 지칭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한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잠수 하던 5분 이상 견디셔.'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5분 가지고 뭘, 우리 할머니는 15분 간 잠수하셔, 해녀출신이지거든.'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자랑을 하나? 우리 삼촌은 작년에 바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남은 자는 잠수를 오래하는 고집이 있는 자도 아니고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그 자리를 지

신에게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장소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자로 섬기라고 하신 곳인가?

믿음이 올 때에 남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2.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꾀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습3:13).

성경에 보면 각 지방에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셔서 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지요. 대홍수에서 남은 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은 인내의 표본으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개의 땅으로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와 제주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1921년에 내쉬빌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선교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했고, 남편의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접근

(3면에서 계속)

다만 논문 저자들은 이들이 배우자와는 소원하게 지내거나 이혼하더라도 자식들과는 계속해서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데 주목한다.

이미 연애를 통해 결혼한 뒤 자식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건 시기를 놓치고 실패했지만, 어쨌든 낳아서 키워낸 자식들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를 일종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라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신앙, 가족, 커뮤니티 등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적립해나가는 좌충우돌 상황에서 저소득층 남성 노동자들과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정신 건강이 이례적으로 나쁜 것이다. 젊은 세대 미국인들 사

이에서 불안과 우울증은 전에 없던 높은 수준이고, 자살율도 덩달아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절망 속의 죽음'(deaths of despair)으로 불리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자살율은 지난 20년간 치솟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넘어섰다. 세대를 막론하고 기존의 제도와 가치관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전에 없는 외로움과 불안에 고통 받으며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고 있는 것이다.

논문을 쓴 연구진들이 분석하고 묘사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삶의 의미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문제는 그동안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필요한 든든한 밑거름이 돼주던 제도와 사회구조가 없어진 데 있었다. 핵가족은 없지만 아버지는 되고 싶었고, 기성 중

교는 싫지만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꼭말라 했다.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들이 살게 된 시대는 딸들러 일하는 이들이 받는 경제적 보상이 갈수록 줄어들기만 하던 시대였다.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사회는 경제적 약자에게 중독성이 높고 끝내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한 뒤 이들을 사실상 방치했다.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원하는 공동체를 꾸려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이들에게는 이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바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의 설문조사 결과 보면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제도에 회의감을 품고 있지만, 앞선 세대인 X세대보다 공동체를 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관용도 그 어떤 세대보다도 큰, 품이 넓은 세대다. 그러므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절망에 허덕이는, 모든 걸 체념한 세대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불의에 희생되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준비가 돼있는 이들이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미투,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금지, 전국민 의료보험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마다 젊은 세대는 늘 약자의 편에 섰다. 이는 이 세대가 태생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다뤄서 집회를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현재 경제체제에서 공유한 세대의 경험이 이 세대를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움직이게 해줬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노동자들과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가족이나 종교, 애국심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제도와 사회가 그런 가치를 위주로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노동자 계급에 관한 논문을 쓴 저자들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분명 엄청난 절망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이들이 넘어서려는 기존의 전통이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지금은 힘든 단순 반복노동에 의존하던 제조업, 신자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던 교회와 더불어 극복하는 과정이 기도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적잖은 이들이 불안정한 삶에 고통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주적인 원칙을 세워내고

이전 세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의 기초를 닦고 있다.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할 때는 노동자들이 흔들리고 주변부로 내몰리는 환경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분석만큼이나 이들이 그 속에서 다시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적잖은 이들이 불안정한 삶에 고통 받으리라는 건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불안과 자살, 절망 속의 죽음의 급증하는 추세만 놓고 보면 지금을 국가적인 위기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나 훗날 역사는 아마도 지금을 과도기로 기록할 것이다. 결국으로 보기에 안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구성원을 지켜주지 못했던 결합 있던 제도의 시대와 주변부로 몰린 노동자들과 주변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던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제도의 시대 사이의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성결과 거룩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당장,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요단강을 건너는 일뿐이었다.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을 하셔야 했다. 어쩌면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게 하든지, 그런 류의 답이 필요했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는 너희의 성결을 원한다, 너희의 거룩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듯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직면해 있다. 결혼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등등.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3500년전 그때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당신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먼저 요구하심을 보낸다. 그것은 성결함,

어떤 성도가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는 땀진 한 톨 없이 먹고 살기위해 낯선 도시로 혈혈단신 이사를 왔다. 먹고 살 것이 제대로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청했다. 일 자리를 찾았는데, 신통한 일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자정 무렵 도넛 반죽을 하러 출근을 했다가 새벽이면 주인에게 맡기고 퇴근하는 힘들고 고단한 일거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작은 수입이 생겨 조그마한 원베드 아파트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자신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그 인생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저리 뒤적 하다가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회를 와도 밤낮을 바꾸어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잠들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통성 기도소리가 왕왕 울려오는데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그 사기꾼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많은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신자의 관점도 동일하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복잡하다. 고집스럽게 나눠진 그분열은 치유불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날카롭게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첨예하게 나뉘어 전쟁같이 공격하는 것을 본다. 나뉘어져도 건설적인 일들을 균형있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러나 지금은 기준도 없이 자신의 당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을 향해 달려간다.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듯 하다. 더 이상 같은 국민, 같은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느낌도 가지게 된다. 위정자들이 그러하니 결국 그 모든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국민들은 이리저리 찢긴 채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은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을 돌보고 먹여 양육하고 부양하는 아버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은 입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메시아를 배척한 것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회복의 시작

회복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드러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다. 격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여차하면 쉽게 떠나려가 버리고 말 것이다. 풍랑 중에 노 저어 항해하는 사공의 치열함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주님 주신 한때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았노라 말할 수 있을까?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묻고 답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함의 자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답에 일치하는 삶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 앞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

- 성결과 거룩, 분리와 구별

바로 거룩한 존재에 대한 요구이다.

하나님의 실행원리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문제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풀아가는 우리의 존재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님은 성결과 거룩에 합당한 존재가 먼저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눈앞에 닥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찾는다. 직면하는 직장문제, 사업문제, 돈 문제 등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해결해주시기를 원한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앞서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전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 너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규정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 이 말씀 앞에 많은 염려의 문제들이 드러나 있다. 모든 염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더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실행 원리이다. 주님앞에 자신을 규정

던지, 주여 삼삼하는 소리가 죽어, 죽어, 죽어라는 소리로 변해서 들리더라는 것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의 고통으로 몸은 아위어가고, 그럼에도 꾸준히 잠들지 못하는 시간에, 새벽에 교회를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기도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말씀이 그에게 터치가 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기도를 하고자 눈을 감으면 늘 기도를 방해하던 그 원수 같은 사기꾼이 보였는데, 그 사기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몰골이 앙상한 자신과 그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그 영혼의 필절한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면서 한없이 자신도 울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앙상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역울한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주님보다 더 고통당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 같은 인생을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그의 삶에 드러난 회복이었다. 비로소 그는 단잠을 이루게 되었고, 자신에게 이리저리 얽힌 재정적 문제도 하나둘씩 극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간증이다.

공동체의 갈등과 고통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찢고 갈리게 만드는 것을 본다. 어떤 정당함 이유에서든지, 분쟁하고 나뉘지면 황폐케 되고,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신자와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교계의 입장들이 천차만별이다. 교계에서는 현실정치에 대한 언급은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것 외에는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교계가 어느 특정 정당의 주장을 편들거나 심지어 무슨 기독교정당을 만들어 정계에 진출하려는 도모 등은 지극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투사와 같은 예수를 원했는데, 예수는 그 바람과 전혀 달리 철저히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두었고, 천국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늘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 땅의 권세와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셨다.

무엇이 먼저인가?

세상을 향한 신자와 기독교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하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선하여 하늘 천국백성의 존재가 먼저라는 것이다. 주님의 공생애 말기에, 최악된 인생들은 천국복음을 듣고 삶의 근본 뿌리를 변화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예수를 맞추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 예수는 이제 죽음을 예언하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던 그 입술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조각을 먹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

된 존재로서는 것이다.

삶의 문제들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다가온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런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할 능력도, 답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주 앞에서 거룩함의 존재의미를 찾는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담임 목사가 "21세기 모라비안 성령 공동체"라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주셨는데 웨슬레를 변화시켰다는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에서 권명옥

A: 좋은 질문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오늘날 지상 교회가 본 받아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카톨릭의 반 종교개혁운동(Counter-Reformation)이 일어났는데 그 후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세력은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오늘날의 체코인 보헤미아에서 사상적으로 15세기 종교 개혁자인 존 후스의 개혁정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이해하려면 한사람 '존 후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존 후스는 1373-1415년까지 짧게 생애를 살다가 간 분으로 당시 카톨릭 시대에 특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후스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1483-1546)보다 100여년 앞서 종교개혁의 불을 댕긴 15세기 종교 개혁자로서 첫째, 보헤미아(체코)인을 위해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둘째, 모국어로 설교하면서 성경과 달리 '교황을 우상시'하고 면죄부를 판매한 부패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셋째,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직접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이라고 평신도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체코의 존 후스로 시작된 공동체로 독일로 피신 진젠돌프의 헤른후트에서 독일 영적각성 이끌어

선포했습니다. 사제들의 전유물 같았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혁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에 잡혀갔고 결국은 타오르는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 화형의 이슬로 이 땅을 떠났던 순교자였습니다.

이 존 후스의 개혁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체코의 모라비안 신도들은 한마디로 다 복음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체코의 모라비안 형제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고문을 당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결국은 그들의 고향에서 도망쳐야했습니다. 1722년 90명 정도의 신도들이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난민으로 체코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 인근 독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난민이 된 것입니다.

헤른후트(Herrnhut)는 독일과 체코, 폴란드 국경에 인접한 인구 1200여명의 마을입니다. 이 곳의 영주(백작)였던 진젠돌프가 알고는 그는 독일산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지(領地)인 헤른후트에 그들 모라비안 난민들의 피신처로 내주며 공동체를 이루며 정착하게 했습니다. 진젠돌프는 백작직을 포기하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섬기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년 후인 1726년에는 그 수가 약 4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후에 독일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습니다.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피난처' 또는 '하나님의 방대(The Lord's Watch)'란 뜻입니다. 오늘의 지상교회에는 바로 이 독일의 헤른후트처럼 이 시대의 환난당한 사람의 피난처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18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8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 선발인원** 10명: 각 \$1,500
-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 응모마감** 2019년 10월 31일
- 수여자 발표** 2019년 12월 18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비하리(BIHARI)

4개 국가에 거주하는 7개 비하리 종족들의 통합 프로젝트. 방글라데시와 피지의 비하리, 인도의 양가, 인도와 네팔의 보즈푸리 비하리, 인도의 마가디 비하리, 인도의 나그푸리 비하리.

몇몇 비하리 종족들은 인도와 네팔, 피지, 방글라데시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중심지역은 인도의 비하르 주에 있으며 네팔 남부의 서부 테라이 주까지 이른다. 마가디와 나그푸리족 등의 일부 종족은 서부 벵갈 주에서도 볼 수 있다.

비하리족은 몇 개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보즈푸리어다. 이 방언은 문자는 매우 적지만 구전되는 민담이 많다. 나그푸리와 마가디어 같은 다른 비하리의 방언



들은 보즈푸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마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네팔에 있는 비하리족의 대다수는 마이틸리족 인근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비하리어와 마이틸리어를 함께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하리족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피난 온 듯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47년에 인도가 분열돼 인도 힌두국가와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로 뿔뿔이 찢어졌을 때 일부 비하리족은 무슬림들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구 동파키스탄)가 2개의 분리된 국가가 되면서,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이 비하리족들은 벵갈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머물렀다.

삶의 모습
일부 비하리족은 대 히말라야 산맥의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가옥은 고도

1,000피트(300미터)나 되는 조밀한 정착지에 짓는다. 그들 공동체 내에서 사회階層은 지역적인 수준으로 마을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보다 부유한 비하리족은 대개 기와지붕이 있는 진흙벽에서 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으로 된 빈약한 진흙벽에서 산다. 어떤 비하리 공동체는 네팔 중남부의 치타완 주에 위치해있는데 그곳 사 람들은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이 있는 석조가옥에서 산다.

1971년 이후 방글라데시는 비하리족을 열등민족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이 파키스탄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대단히 분개해한다. 방글라데시가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을 때, 절반 이하가 이를 받아들였다. 거북한 사람들은 국적을 바꾸지 않기로 "약속된 땅",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죽겠다고 맹세했다. 불행한 것은 파키스탄 정부는 비하리족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구가 초만원을 이룬 난민촌에서 살며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과 다른 자연

재해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비하리 인구의 약 3/4가 경작지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그들 거의 전부가 농업에 종사한다. 네팔의 테라이 주와 인도 북부의 토양은 양질이며, 넓고 비옥한 땅을 제공하는데 비해 침식은 거의 없다. 비하리 농부들은 매년 있는 건기와 우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생산물은 "하트(hat)"라고 하는 매주 열리는 시장에 내다팔며, 이것은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힌두교 인구는 엘리트 상층 계급 즉, "카스트"와 소위 후진적인 카스트까지 형성한다. 비하리족 대다수는 이중 하층 카스트에 속하며, "브라만(Brahmans, 사제와 학자들)"이 최상의 카스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들이 그 지역 힌두교의 종교적 주축을 이룬다.

비하리족의 부족문화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와 산업화, 새로운 통신연락망, 부족 복지계획,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거쳐 흘러내리는 히말라야 물줄기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
대부분의 비하리족은 힌두교도이지만 또 상당한 수의 무슬림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인도의 북부 비하르 주에 살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주요 신을 숭배하는데, 즉 "브라마"(Brahma, 창조자)와 "비슈누"(Vishnu, 보존자), "시바"(Shiva, 파괴자)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숭배되는 힌두교 신의 수는 3500만에 이른다고 하며, 그 신들 대부분은 선함과 악한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환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가르친다. 업보(karma)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지만 악한 삶을 살면 보다 못한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한다.

힌두교 부족들의 마을 대부분에는 "거룩한 숲"이라고 불리는 무도장이 있으며, 이 곳에서 마을 사제에 의해 예배가 행해진다.

비하리족 중 소수(약 5%)는 "자이나교"이다. 자이나교는 6세기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처음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후에도 또 다른 몸을 갖고 영혼은 계속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힌두교와는 반대로 최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카스트 제도와 제사지내는 것도 거부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하르 주의 역사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이 주는 또한 인도에서 가장 후진적인 곳으로 평판이 나 있다. 따라서 비하리족의 물질적 필요는 상당히 많다.

방글라데시의 비하리족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국가와 자신들이 위해 투쟁을 바치는 국가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만 참된 영접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넷플릭스·동영상 사이트 선교사역에 방해"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지역민에게 떨어진 가족과도 어렵지 않게 연락할 수 있고 동영상 사이트 넷플릭스를 통해 고향 드라마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요즘 시대, 선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은 뭘까.

남편의 사역을 따라 대만으로 넘어간 레이철 클리펜 선교사는 지난 13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에 초연결사회가 선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클리펜 선교사는 2016년 결혼 3주 만에 남편 트래비스 클리펜 선교사와 함께 타이베이로 왔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결혼 전 본 남편의 현지 생활상이 그가 어렸을 적부터 가져온 선교사의 모습과 사투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 선교단체 YWAM(Youth With A Mission)의 대만지부와 5년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사역준비를 하던 남편은 카페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에어컨과 무선인터넷, 위성TV를 갖춘 현대식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 편리함 속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고향 소식은 낯선 현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발생했던 향수병을 완화해줬다.

하지만 현지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는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선교사로 나간 이들이 여전히 고향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이런 기술 발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방해했다"고 고백했다.

17년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봐 온 스콧 콘티벌 YWAM 대만 지사장도 "넷플릭스나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접하는 고향 소식은 향수병을 앓는 선교사들의 현지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사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클리펜 선교사는 "미디어의 유혹이 사역에 방해된다는 걸 깨달은 뒤, 집안의 TV를 치웠고 인터넷으로 고향 소식을 접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현지인과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그 결과 현지에 또 다른 가족이 생겼고 대만은 제2의 고향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주변 가족과 동역자들의 역할도 선교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기보다는 그가 사역에 신실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견뎌주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복 차림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흰색 성가대복을 차려입은 성가대가 '복의 근원 강림하시' 등 찬송 3곡을 연달아 불렀다. 예배실은 장의자가 놓여있고 강단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는 모습이 남쪽의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

재미교포인 최재영(57) 목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작교뉴스 최재영TV'에 공개한 2012년 9월 평양방송교회의 예배 모습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만난 최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할 북한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설명했다.

찬양이 끝나자 여성 장로가 강단 위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공로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며 대표 기도를 했다.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 집사가 이사야서를 봉독한 뒤 다시 성가대가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부르고 나서 설교가 시작됐다. 3대 담임인 손호순 목사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을 향해 걸어 가야 한다"며 다양한 예를 들어 설교했다.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한 최목사는 'NK 비전 2020' '손정도 목사기념학술원'을 운영하며 북한을 자주 방문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입국을 금지한 2017년까지 북한의 여러 기독교 공식 행사에 초대받았다.

봉수교회 예배 전 과정의 주요 모습을 담은 19분짜리 유튜브 영상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소속된 북한 공식 교회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북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예배는 남한 교회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했다. 예배 중에 찬송가를 10곡 가까이 부르는 점이 특이했다.

영상에서 설교를 한 손목사는 별세했다. 현재 봉수교회 4대 담임은 송민철 목사라는 인물이 맡고 있다. 봉수교회는 남쪽 교회의 지원으로 1988년 완공된 이래로 평양 주민과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매우 찾고 있다.

최목사는 북한교회를 소개하다보면 다양한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강연에서 '북한에서 종교를 믿으면 기관단총으로 총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최목사는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 조항이 분명히 있는 국가"라며 "종교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억압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년 평양신학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기에 북한 내 공식 가정 교회만 500여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공식교회에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은밀하게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최목사는 지난달 17일에는 2013년 평양 칠골교회 리모델링 현장과 2014년 건축 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조그런 백봉일 목사가 직접 교회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최목사



는 "북한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영상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 교회 내 예배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40초에 한명씩 자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초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중 10.5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매년 약 80만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 살인,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치다.

자살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79%)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10만명 중 7.5명)보다 남성(10만명 중 13.7명)의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는 남녀 자살률이 비슷하게 집계된 반면 고소득 국가는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

자살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WHO는 지난 몇 년간 자살률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으며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한 나라가 38개국에 불과한 점을 아쉽다고 밝혔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입증된 자살 예방 전략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소미아' 요구하면..."

이달 말 뉴욕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대북 정책 조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3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이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15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앞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우스 국장은 "나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하면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교환이 이뤄질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우스 국장은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트럼



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국에 가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도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유지의 최고 대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차선책은 일본의 보복조치들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우스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은 어리석은(stupid) 것으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래리 니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 한국이 특별한 평가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협상 진전의 중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정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에 이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여러 대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것을 두고 미국의 군사 공격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은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어 이란을 암묵적으로 압박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잠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누가 공격을 일으켰다고 사우디가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행할지 등에 대해 사우디로부터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사우디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강조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번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을 공격한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자처했다. 하지만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실질적 배후로 지목하고 있어 그간 이어져온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북한교회 예배 모습, 유튜브 방해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에 있는 봉수교회. 주일을 맞아 형형색색 정장을 차려입은 북한 주민들이 교회에 모였다.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2. 김인준(1886-1947?)

김인준은 1886년 9월 16일에 평북 철산군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출생 2주 되던 날 부친이 사망하였다. 그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통달한 후 평양에서 대성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를 거쳐 1926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장로교 총회 장학생으로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유학길에 올라 1929년 4월에 시카고에 도착했고, 그해 가을에 맥도믹 신학교에 입학했다.



김인준 목사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목사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담임 전도사 이자 한국에서 김인준의 친구였던 장세운이 1929년 12월에 사면한 후 김인준이 본 교회 목사로 피선되어 1930년 1월 12일부터 시무했다. 이날 교회 간사로 허 규를 선택하였다. 그해 3월 1일 저녁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시카고대한인공동회의 주최로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5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김인준은 영광스럽고 함께 소감을 발표했다.

소감과 1년 을 지난 오 늘날의 소 감이 무 엇이 다른 지 는 자 세 히 깨 단 기 어 렷다... 과 거 1년 간 나의 개인 생활을 반성하여 보는 때 에 겸 하여 교 유 동 포 사회와 학생 생 활에 대 한 사 사 의 견을 말 하여 보 고 자 한다...

아버지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한 글이 마음에 서려서 잠시도 잊을 때가 없다. 일반호 여학에 시달리고 양식에 염증 나고 풍속에 괴로워진 나는 당초 어떠한 결심까지도 믿음은 해이하여진 것 같다. 당초에 정거장에서 막상 기차가 발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목사는 박사 되기를 축원하고, 어떤 선교사는 간단하게 영어로 하는 말이 잘 가서 잘 준비하고 잘 돌아와서 일 잘하여 달라고 하고, 어떤 청년은 하는 말이 우리는 선생의 박사 된도 불원이고, 명예 남도 불원이고, 선생이 지금까지 생각하여 오고 우리가 생각하여 가는 그 방책을 잘 연구하라 하였다. 이 모든 축사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나 역시 별다른 인물이 아닌지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슬프다! 나의 과거 1년의 생활은 소극적이라 함보다 무의미한 생활을 하여 왔다...

(1) 나의 학과 생활

나는 1년간 시카고장로교회신학교 연구과에서 헬라문과 히브리문과 혹은 종교교육학을 연구하였나니 그 소위 종교교육과는... 중단하고 말았다. 히브리문과 헬라문은 계속하였다. 학기 성적도 그만한 관계지 아니한가 보다. 백인에게도 흠이 놀라는 듯하다. 이 학과를 택하게 된 동기는 본국에 있을 때에 일찍 여러 해 동안 성서 지역에 종사하던 관계이다... 히브리문에는 전 소경이었던 관계상 '성경

넓이 광포하여 줄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아무 경향이 없이 배울 욕심만 가지고 오는 청년 자녀를 위하여 상항이나 나성 같은 곳에 간단한 기관을 베풀고 몇날 동안 식이라도 사정을 알게 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혹흥의 기술까지 상식적 훈련을 시켰으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동포가 많이 유하는 곳마다 가끔씩 직업소개소 같은 것과 경우에 의하여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기술까지 강습시켰으면 좋을 듯하다...

2. 나의 현직 교역 생활

본인이 유하는 지방에는 다행히 교회가 설립되었다. 본인이 그 분야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하나 재류 동포들의 열성과 아울러 김창준, 노준택, 한승근 제씨의 적극 교역자가 있었던 까닭이다. 그들이 없는 오늘에도 저들의 말을 하는 교우가 종종 있으면 참으로 부럽다. 작년 4월에 이곳을 당도하여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반가워하였다. 당시에 장세운씨가 임시 전도사로 시무 한다하니 씨는 본국 있을 때부터 친히 아는 학우이며 현재 북미 유학생에게 명예가 쟁쟁한 인사라 한다. 작년 12월에 해 씨가 사면하고 교역자가 없는 당분간은 본 교회 이사회를 조직하고 교무를 진행하니 이병두, 강영소, 영광섭 제씨는 각 방면으로 신망이 좋다 한다. 이네들 9인이 당분 교무 일체를 처리하는 중에 불행히 후계 임시 교역자로 본

무에 착수하였다. 본 교회 이사장 영광섭, 강영소 씨 등은 참으로 인격자이다. 저들의 심부름 경험과 주밀한 경험으로 교회가 다만 자취를 떠난 맛이 보이고 김 경, 천세헌, 정태은 제 씨 같은 이는 우수한 실업가의 호의적 협조 지도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쁘다. 학과에 매이고 지방 사정이 서툴러지는 3, 4월 동안 유명무실로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을 들으실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아직 모르나 시간은 좀 더 써볼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 유학생 기숙사가 있었다. 1930년 4월에 실시한 연방정부 인구조사에서 본 교회에서 근무한 본 교회 간사인 허규 그리고 문일래, 이종석, 배종선, 윤로이드, 윤성현, 이복완, 이수무열, 김창순 등 유학생 명단을 볼 수 있다.

그해 9월 14일 하오 6시 30분에 김훈의 천육분양이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이후 축하회도 있었다. 이 결혼식에 김인준 목사가 주례하였다. 그해 11월 29일 신한민보 시카고 지국 창립 축하회가 대성회를 이루었는데 김인준 목사가 김 경과 김창순과 함께 '내빈의 축하사'를 담당했다.

그해 12월 7일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명년도 목사 후보자로 김인준을 추천하여 일반 교인의 투표에 부쳤는데 김인준 목사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그의 목회는 약 1년간이다. 목사 선택이 곤란한 가운데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이사부는 1931년 2월에 이사부 부장 영광섭을 임시 담임교역자로 선정하였고 김인준은 전도부 부원이 되었다. 전도부 부장은 강택모였고, 위원은 장세운, 이규용, 갈홍기, 정경옥, 문찬규, 위혜진이 더 있었다. 전도부 부장과 부원은 모두 장로교나 감리교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본 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였다.

귀국

김인준은 이규용과 강택모와 함께 1931년 여름에 맥도믹신학교를 졸업한 후 프린스턴신학교를 거쳐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가 1933년 6월에 귀국하여 평양신학교 교수와 교장, 숭실대학교와 숭덕학교의 이사장, 숭실전문학교와 순서 그리고 평양 상흥교회 목사를 역임했다. 해방 후 이북5도 연합회사가 김인준을 승인하여 이북 지역 총회 신학교 교장이 되었는데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성에 등록하기를 거절하자 1947년 1월 17일에 소련군이 김인준과 이북5도 연합회 목사 전원을 연행하였고, 시베리아로 유배된 후 소식이 끊겼다.

damien.sohn@gmail.com

평양신학교 졸업 후 유학,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담임 1년 사역 신학박사학위 취득 후 1933년 귀국, 이북지역 총신 교장 재직

1. 나 개인의 사적 생활

누구나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남다른 뜻을 품고 시기가 아니요, 처지가 미안한 중에서 뛰어나왔다. 아버지가 멀리 간다는 말에 뜻을 잃은 어린 자식의 슬피 울던 그의 소리가 귀에 아직 쟁쟁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정거장 전송하는 마당에 정신없이 서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사라지도록 바라보고 섰던 형용이 눈앞에 현현하고 돌도 없이 사랑하는 여남 살 먹은 딸아들이 보낸 편지에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소이다. 아버지 집에 계시는 때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소자의 손을 끌고 기차동 공원에 산보하여 연두꽃을 구경하며 혹은 대동강에 배를 띄워 영명사 앞 중앙 절벽의 승경을 더듬게 하시던 일을 잊을 수 없소이다. 먹고 입고 싶은 것은 모친님이 잘하여 줍니다. 아버지의 부탁하신 대로 아우에게 국문을 가르쳐 주어 오는 학기 부터 학교에 데리고 다니려 합니다.

개역회 석상에서 혹 어구에 대하여 강경히 주장하다가도 어떤 회원(선교사)이 히브리 원어를 들고 나설 때는 억울하게 머리를 숙이고만 일이 종종 있었다... 나의 도미의 원인은 아니나 도미시기를 혹 성실한 것만치 학과를 선택하는 원인은 되었다... 헬라어 학과로 논문도 필하였다.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 학과생활은 그리하지마는 학생생활에 대하여는 오산이었다. 스스로 생각이 이만한 이력을 가진 내가 가면 어느 학교나 사람이나 다 문을 열고 환영하여 음식도 주고 방도 주고 웃도 주고 돈도 줄 줄 알았다... 인하여 미국 유학에 대한 상제를 본국 어느 기관을 통하여 1년 1차식

1930년 인구조사(Kor은 한국을 의미하며 숫자는 연령)

인이 지명되었다. 일반 교우의 투표에 의하여 절대 거절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늦으나 재류 일반 신도의 후의를 감사하여 마지 아니한다. 하물며 오늘까지 피차의 사랑이 더욱 신성하여짐이오. 본인의 처지 상 경솔히 할 수 없어 본교 교장 스톤 박사와 금년 총회장 맥아피 박사의 의견을 듣고 본 구역감리사 무어 박사의 서명이 있는 후에 의심이 풀어 본인을 과소한 본국 장로교회 총회 학부국장과 총회장에게 이유를 보내고 금년 1월 12일부터 임시 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뚝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772-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웨스 경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흥: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beth@bkc.org www.bkc.org 187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부흥) 수요일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6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사경기도: 365일 24시간 모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성령대명사: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6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일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름만 모세가지 증거의 정맥이 들어가 본 족 제의 짐을 위하여 내 아들의 지팡이에 품이 들고 손이 내 팔이 피어서 살피게 하였네" Tel: 213-924-3340, 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1편 천로역정(4)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이 하나씩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길에서 큰마음과 일행이 된 사람들은 다양했다. 늙은 정직함(Honest)씨, 진리의 용사씨, 불굴(Stand-fast)씨 등은 모두 영적으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든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또 선을 죽이는(Slay-good) 거인에게 가까스로 구조된 병든 심약(Feeble-mind)씨,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목발을 잡고 절룩거리리는 망설임(Ready-to-halt)씨, 겁쟁이(Much-afraid) 부인의 딸과 함께 의혹의 성에 갇혀 굶어 죽을 두려움에 사무친 낙담(Despondency)씨 등도 있었다. 그러나 큰마음은 그들 모두를 보살폈다.

남게 영광을 돌리며 잘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지 설명하려 했다.

1부 전체의 강조점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희망(Hopeful)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크리스천이 어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과 악령들에 대한 환영이 크리스천을 억눌렀다. 그때 희망은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지금 이렇게 목숨에서 받는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온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

나이어”. 정직함씨는 “은혜가 다스린다”고 말한다. 진리의 용사 씨는 “죽음에 네 고통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이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불굴 씨는 다음과 같이 길게 선언한다. “강물이 허에는 쓰고 몸에 차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곳을 생각하고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안내자들을 생각하니 내 심장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워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고 얼굴에 짐 뺨을 당했던 그분의 얼굴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남이 하는 말과 믿음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기쁘게 모시고

신 구원이 방법인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였고 기 때문이다. 이런 무지의 헛된 열심과 소망에 대해 로마서 10장 2,3절은 말씀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문 안으로 들어간 성도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신분증명서를 내보일 때 성문이 활짝 열렸고 문턱을 넘는 순간 그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한쪽에는 하프와 면류관을 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며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외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 눈에 들어왔다.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생명과 죽음의 실재에 대한 진실을, 그것들이 항상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목사의 교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변연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달라붙어서 무력하고 의지할데 없는 자에게는 큰 위안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을 보는 듯한 서술을 통해 진리를 펼쳐셨고, 그 모든 말씀들은 비유와 그림 언어로서 탁월한 소통을 보여주셨다. 변연도 신앙과 신학을 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극적으로 그리고 개인관계 용어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호한 비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된 정세성

참고성경 : 대상 1-10장

에스라학사는 상세한 족보와 더불어 본토의 땅을 상기시키며 비록 노예로 고생하나 저들이 돌아가 찾아야 할 분깃을 붙잡도록 저들의 관계 정세성을 부여잡도록 도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정세성이 희미해진 저들에게 에스라 학사는 피터지게 정신차리라 외친다.

12지파의 족보들을 어찌 이리 자세히도 찾아내어 기록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일일이 기억되는 약속의 자녀로 찾아주려는 에스라의 열심이 놀랍다.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과감히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에스라는 아담까지 조상을 연결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고취시키고 노예근성에 찌들어 희미해진 정세성을 소리쳐 깨우고 있다.

남의 나라 종살이란 처절한 상황에 들어가도 살아남으려 그 상태에 맞추어 적응해 동화되어 선민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뒤 흔들어 깨우고 있다. 나는 겁대기는 신자이나 속은 세상 속화된 육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지? 에스라의 외침이 가슴을 파고든다.

사랑하는 주님!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방인화한 이스라엘을 보며 나도 처음 은혜 받은 시간이 경과함에 세상의 익숙하던 습관으로 돌아가 믿음의 겁대기만 끼고 사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주눅 들게 아니라 믿는 자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영적 유산을 부여잡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자신의 기업을 찾아 누리라는 도전장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용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늘의 분향 찾아주시기의 열정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영혼사랑의 초심을 불일 듯 붙여주소서. 내 은사의 분깃을 찾아 끄집어내어 풍성히 주님나라 확장위해 충성하는 은혜를 주소서.

heenlee55@hanmail.net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정착시키기 위한 교훈의 쇄고봉 그리스도인 일생에 가장 기억할 죽음의 날 신분증명서는 영원한성 입성 때 가장 중요

음 꼭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다시 그분이 보인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마귀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8. 이야기의 결어

변연은 그들이 드디어 당도한 천국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으로 1부를 마치며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끝낸다. 그러나 2부 전체의 강조점을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라 목회에 있고 그 구성의 절정은 다양한 순례자들이 현재의 생을 마감하고 저 너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임종 장면을 연속적으로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변연은 모든 것을 멈추고 우화와 현실을 통렬하게 혼합시키는 상태가 된다.

1)사망의 강을 건너며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대한 생생한 비유는 우리가 차례로 각자의 침상에서 죽음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엮여진다. 크리스티아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주여 주와 함께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는 지금 갑니다.” 망설임씨는 “어서 오라, 생명이여!”라고 말한다. 심약씨는 “믿음과 인내를 꼭 붙잡으시오”라고 말한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인 낙심씨는 낙담과 친한 두려움을 악령처럼 떨쳐 버리고, 자기의 딸인 겁쟁이 부인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널 즈음에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한다. “잘 가 시라 밤이여, 어서 오라

싫은 그분을 친히 뵈고 그분을 곁에 모실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굴 씨는 “주님께 가오니 저를 받아 주소서”라고 말을 마친다.

변연은 우리 독자들이 일관된 관점으로 죽음의 날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가장 기억할만한 날임을 깨닫기 바라면서 글을 쓴다. 그러기에 그가 쓴 어떤 글보다 이 작품에 강력한 힘이 실려 있다.

2) 영원한 성에 들어가며

영원한 성에 들어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는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천로역정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 먹은 벼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에 그리스천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 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변연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야말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이다. 이 결어적인 부분에서 변연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신분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 도전하고 있다.

무지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련하

가지를 들고 정금 하프에 맞추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황금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섞여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실 새 없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이라고 찬미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한 것이다.”

나가면서

우리가 변연의 걸작을 다시 읽어야 할 때이다. 변연은 1부를 쓰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썼는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단지 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다른 판타지와는 다르게 변연의 이야기는 우화적인 것

유법이 비유법을 채용하지 않은 글보다는 더욱 공상에 깊이 들어가 읽는 이의 마음과 머리에 더욱 빠르게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는 영적생활의 진리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책을 성경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진수를 요약해주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도록 인도해주는 크게 유익한 선물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younsulkee@hot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내 마음의 거울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사물의 존재를 인식한다. 사람은 눈에 감지된 사물을 보고 그것의 이름과 기능 등을 판단하며, 그 사물을 보고 지나칠 것인지 가서 만져볼 것인지 또는 피하고 도망갈 것인지를 판단한다. 사람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마음의 눈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창문과 같은 눈이 있다. 이것은 눈이 창문 너머의 세

계를 보는 것처럼 단순히 사물의 존재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인식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창문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사물을 잘 볼 수 없고 각각의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사물을 인지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수준과 관점에 따라서 세계를 본다. 사람은 자신 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창문과 같은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는 안경과 같은 눈이 있다.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안경은 작은 것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적인 눈이 있고, 또한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망원경적인 눈이 있다. 현미경적인 눈은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한다. 그래서 현미경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보다 그 뒤에 숨은 실체를 찾아내고 사건의 숨은 의미를 해석해 낸다. 망원경적인 눈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의 사건을 과거를 토대로 분석한 후에 미

래를 전망하고 예측해 낸다. 그래서 망원경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며, 시련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장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행스러운 사건을 미리 예비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안경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지혜와 영감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셋째는 거울과 같은 눈이 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덩수룩한 머리털을 보고 나의 화난 모습도 볼 수 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다듬듯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몰두명을 만들어서 성막입

구에 두게 하셨다. 몰두명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청동거울들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것들을 녹여서 만들었고, 그 속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그 몰두명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게 하셨다(출30:18-20; 38:8).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숨은 죄악도 씻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씻지 않는 사람과 같으며,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약1:22-24).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경고한다(유1:7).

성경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매우 부끄럽고 추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행실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하셨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비추어보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성도는 성경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을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성도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풍조들을 성경이 장착된 안경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성경이 코팅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끊임없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닦아서 거울 속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dik0184@yahoo.com

신임 노회장에 한성운 목사

PCA한인서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PCA한인서남노회(노회장 정공필 목사) 제 73회 정기노회가 10일 오전 10시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한성운 목사를, 부노회장에 김지원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노회장 한성운 목사는 “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는 인랜드교회 안환 담임목사가 예장합동총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합동측으로부터 PCA 소속 목사가 되는 즉시, 총회법에 의해 제명됐다

는 답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노회전 정공필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신정훈 장로 기도, 양동환 목사 설교, 정희주 목사 성찬식, 정일웅 목사 축도했다.

다음은 노회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한성운 목사(나성남포교회) △부노회장: 김지원 목사(승리장로교회) △서기: 정일웅 목사(리디마장로교회) △부서기: 권승룡 목사(예수가족교회) △회계: 신정훈 장로(벨리베헤장로교회) △부회계: 강정환 장로(동부사랑교회) △회의록서기: 이동엽 목사(회의록부서기: 주진혁 목사



PCA한인서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신임 노회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KPCA서노회 93회 정기노회가 갈보리민음교회에서 열렸다



CRC한미노회에서 새노회원으로 가입된 권병록, 조강왕, 정용제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신임 노회장에 강진웅 목사

KPCA 서노회 제93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임시 노회장 지영환 목사) 제 93회 정기노회가 5일 오전 9시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강진웅 목사를 선출했다.

지영환 임시 노회장 사퇴로 시작된 노회는 회원점명, 개회 선언, 절차보고, 임원선출로 이어졌으며 노회장에 강진웅 목사를 부노회장에 이현동 목사와 임의순 장로를 선출했다. 다음은 KPCA 서노회 신임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강진웅 목사(갈보리민음교회) △목사부노회장 이현동 목사(라카나디아루다운교회) △장로부노회장 임의순 장로(나성영락교회) △서기 한병기 목사(새로운교회) △부서기 조준석 목사(예수생명교회) △회록서기 이철훈 목사(성광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이태근 목사(새마음교회) △회계 김원만 장로(갈보리민음교회) △부회계 박영훈 장로(나성영락교회).

권병록 목사 등 3명 노회 가입

CRC 한미노회 정기노회

북미주개척교회(CRC) 한미노회 정기노회가 버뱅크 베다니한인교회에서 10일 오전 10시 열렸다.

조성주 목사의 사퇴로 시작된 노회는 경건회와 성찬식이 있었다.

이날 노회는 권병록, 조강왕, 정용제 목사에 대한 노회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플로어테스트를 가졌고 시험관들과 참석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사안을 질문하고 대담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플로어테

스트를 마친 후 3명의 목사들의 노회가입이 승인됐다.

이날 노회는 총회 대표로 사역부(Director of Ministry) 대 표인 콜린 왓슨(Coling Watson) 목사가 교단본부의 관심사항과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있었고, 웨이스 포메이션(Faith Formation) 사역부에서 주진석 목사가, 교단 선교부 레조네이트(Resonate)에서 찰스 김 목사가 나와서 각각 사역을 소개했다.

(박준호 기자)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

제15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 50여 민족교회 참여

제 15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 GIM교회 담임)가 9월 14일과 15일 Foxworthy Baptist Church(담임 Don Fugate 목사)에서 실리콘밸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 주제는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시96:3), 부제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에 맞춰 산호세 중심의 한국교회를 비롯 미국 주류교회와 50여 민족 교회가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선교대회를 가졌다.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베이 지역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의 한국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합심 통성 기도도 가졌다.

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20개 민족의 지역, 선교 보고도 있었다.

패널은 정윤명 목사(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 선교연합 대표) 사퇴로 7명의 패널위원들이 참석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으로, 미국 내 목회자, 교수, 선교사, 전도사 등의 패널 발표와 함께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도 가졌

다.

패널은 진리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 제시됐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개념은 정부의 박해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숭배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싼 불의를 다루는 교회의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역할들이 논의됐다.

중국(홍콩)과 남북한의 상황이 논의의 초점이 됐다. 이 패널은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가혹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의 지속적인 자유와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최근 한국의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조작된 가짜 평화통일과 사회주의 선전이 한국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면서, 사회주의는 가장 확실하게 한국의 신자와 교회의 박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기사제공: GIM)



단비기독교TV가 LA 진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허연행 이사장, 정상교 사장.

단비기독교TV 10월 1일 LA 진출

스펙트럼 채널 1487번...후원의 밤 개최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가 10월 1일부터 LA에 진출한다.

단비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서 스펙트럼(구 타임워너케이블) 채널 1487번을 통해 24시간 방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주한인 최대 거주지인 LA에 스펙트럼을 통해 런칭하게 됐다.

단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비TV가 캘리포니아 주(40% 커버)에서 케이블을 통해 24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최초의 기독교방송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 이사장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는 “한 걸음 한걸음 충실하다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됐다. 임기 2년 동안 전임 이사장과 직원들이 해온 일을 잘 감당하되 하이테크 시대에 젊은 세대에 다가갈 수 있는 TV가 되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OTT)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OTT는 인터넷 연결지역에서 셋톱박스만 있으면 애플TV, 로쿠, 아마존TV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볼 수 있다.

정상교 사장은 “단비TV의 주 시청자인 장년층들은 OTT를 통한 시청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자체 박스 1만개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박스는 단비TV 콘텐츠와 KBS 뉴스 등은 시청이 가능하나 만약 한국 TV 드라마 등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여 달러가 추가된다.

단비TV는 금번 LA진출을 계기로 기존 이사회 조직을 확대한다. 기존 이사회와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 위한 후원의 밤은 9월 29일(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허연행 이사장 취임식도 함께 열린다.

(유원정 기자)



LA카운티 추석문화 소개행사를 LA카운티청사에서 가졌다

남가주교협, LA카운티 추석문화 소개행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0일 미주한인재단 이병만 회장(분회 부회장)의 주선으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Kathryn Barger의 초청을 받아 극동아시아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의 문화를 소개하고 아시안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LA카운티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Kathryn Barger의 소개와 이병만 장로의 인사, 한기형 회장의 축복기도의 순서를 가졌으며 앞으로

LA시나 LA카운티에 한인문화를 소개하고 한미 간의 정치, 문화 등의 교류를 협력하고 강화하는 일들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형 회장, 김향로 이사장, 이병만 부회장, 안신기 총무 등이 참석했으며 이병만 부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앞으로 LA 정가와 한인사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 남가주교회협의회)



제15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에서 각 찬양팀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KAPC 목회와 신학포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목회와 신학포럼이 총회 상임교육위원회(부장 김선중 목사, 서기 이윤석 목사) 주관으로 11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필라 기쁨의교회 캠퍼스에서 열린다. 지정 호텔은 Hyatt House Philadelphia/Plymouth Meeting(숙소예약은 이메일로 openwordconference@gmail.com).

강의 일정은 △5일-설교학(“소통하는 설교: 영원한 말씀이 변천하는 세상을 만나다”, 강사 노진준 목사) △6일-성경주해(“구약주해: 룯기를 통하여 보는 회복의 드라마”, 강사 최재만 목사) △7일-신학(“개혁주의 신조 연구: 도르트 신조 400주년을 맞이하여”, 강사 이승구 교수). 등록비는 없으나 포럼장소까지 교통비와 숙박비용은 개인부담. 점심식사는 제공한다.

▲등록 및 문의: spark@wts.edu 박성일 목사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 건축바자회가 10월 5일(토) 열린다. 이번 바자회는 오는 21일 착공예배를 시작으로 건축하는 다민족을 위한 성전건축을 후원한다. 품목은 예년과 같이 각종 과일, 음식류, 생필품, 의류, 잡화 등 다양하다. 지하천교실과 파킹랏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뉴욕 은혜교회 설립32주년 기념부흥성회 및 임직식

뉴욕 은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 설립 3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9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열린다. 또 29일에는 임직식이 있다. 부흥회 강사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로 금요일 저녁 8시30분, 토요일 새벽과 저녁, 주일 1, 2부 예배와 임직식에서 설교한다.

▲문의: (718)428-1447

스마트폰 강좌 89기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89기)가 9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뉴욕기독교방송국에서 열린다. 강의 내용은 내가 모르는 카톡활용법, 스마트폰 꿀 팁 등 유용한 기능, 스마트폰 궁금증 해결, 휴대폰 저장공간 늘리는 방법 등. 대상은 스마트폰 1년 이상 사용한 자로서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 폰 등 안드로이드폰 소지자. 선착순 12명.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718)414-4848

NYS장애관련 워크샵 및 리소스 페어

NYS장애관련 워크샵 및 리소스 페어가 10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시작예배 설교는 김학진 목사, 간증 리차드 박 장로, 박명진 성도, 워크샵 강사는 GH0 팻취창 최대실, CIDA 배영서 교수.

▲문의: (201)496-3005, (718)307-6570

CMP 인력개발센터 맨해튼 채용박람회

CMP 인력개발센터 2019년 정기 맨해튼채용박람회가 CCBA(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에서 9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에 위치한 35개 회사 및 정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없으며 참석자는 영문이력서 30부 이상과 면접용 정장 복장을 해야 한다.

▲문의: (646) 770-6311, jaeunkim@cmpny.org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제 18회 정기연주회에서 합창하고 있다.

9.11 추모...칸타타 '골고다 언덕' 연주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8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지휘 양재원) 제 18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5일 저녁 6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9.11 추모 음악회로 시작된 동 정기 연주회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와 선교자금 모금 음악회로 계속된다.

단장 이은숙 권사는 “9.11테러 추모음악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고난의 행적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저녁 칸타타 ‘골고다 언덕’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근속자 김용래 최경윤 권사에게 근속패를 전달했다.

연주회는 전광성 목사 기도가 있는 후 9.11테러 관련 영상 이 상영됐으며 이어 제 1부가

시작돼 “주님 품에”,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합창했다.

현금이 있는 후 바리톤 오희평(“It is Enough”), 여성 3중창(김은희, 배개성화, 김현지, “내 영혼 바람되어”)이 특별공연을 있었다.

이은숙 권사의 헌금기도 후 제 2부 칸타타 “골고다 언덕”(이상윤 작사, 이가영 작곡)를 연주했다.

이날 연주회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폐회기도로 마쳤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10월 13일 인천내리감리교회, 16일 서울 동안장로교회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뉴욕동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노회장 정준성 목사) 제 85회 정기노회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주 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로고시 청원: 뉴욕성실장로교회(강윤희씨 이태규씨), 뉴욕참교회(이승준씨 채요한 씨 김진목씨), 뉴저지북면교회(김주연씨 한광용씨) △목사후보생 고시청원: 뉴욕참교회(최진권씨)의 현의 청원문서를 접수했다.

또 노회원이었던 이영기 목사가 9월말 실리컨밸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함에 따라 노회원들의 축하영상을 제작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이상만 목사, 성경봉독 문덕연 목사, 설교 및 성찬예식 집례 정준성 목사, 축도 박희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준성 목사는 “주의 만찬”(고전11:17-34)이라는 제목으로 사도바울이 4개 파로 갈라진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며 전한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의 핵심과 의미, 성찬 하는 자세에 대해 설교했다.

정 목사는 “성찬은 예수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나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강을 잃게 하시고 목숨을 잃게 하시는 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성찬은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찬을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김재호 목사) 제 85회 정기노회가 9월 10일 오전 10시 뉴저지광성교회(담임 김지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처리를 통해 △뉴저지개혁장로교회(담임 박형기 목사) 김영진 목사 노회가입 △뉴저지우리교회(담임 오종민 목사) 교회이전 허락 △해외노회원 노회참석 경비보조 등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노회장 조덕남 목사) 제17회 정기노회가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센트럴교회 현종영 전도사의 주비전교회 이명 청원 허락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전현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재택 목사, 설교 조덕남 목사, 성찬예식 집례 김재열 목사, 축도 조성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남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사장 취임, 신임교수 보직수여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개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산하 교단신학교인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정익수 박사) 개강예배가 9월 9일 오후 7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윤성태 목사(뉴욕학장) 인도로 기도 박희근 목사(교수), 동문학우회 특송에 이어 이윤석 목사(교수)가 역대상 28장 9-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하경빈 박사의 이사장

취임사가 있었고 김중태 목사(해외총회 부총회장)가 엄기환 목사(총회장) 대령으로 취임패 증정을 했다.

정익수 총장은 신임교수에 한상홍 박사, 정관호 박사를 보직수여 했다. 총장 교시 후 각 교수의 교과 안내와 하경빈 박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만찬은 조영길 박사의 식사기도 후 하경빈 이사장이 준비한 만찬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총신대신대원)



패밀리터치 제4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후회 없는 부르심” ..강사 유기성 목사

패밀리터치 제4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패밀리터치(원장 정성숙 박사) 제4회 사모들의 행복축제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부터 2일간 포트리 소재 더블 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주강사는 원래 유기성 목사님의 부인 박리브가 사모였으나 건강의 문제로 오지 못해 남편 유기성 목사가 대신 강사로 섰다.

사모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

은 유기성 목사는 “사모님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려 썼다”며, 마태복음 16:24-25을 본문으로 사모들의 고난보다 훨씬 큰 부르심의 소명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고민들을 솔직히 나누었다.

유기성 목사 외에 예수동행 운동(위지엄)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김선혜 사모가 강사로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인도했다.

사모들의 행복축제는 이외에도 주제강연 이경애 사모, 정정숙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 그룹 나누기 및 기도, 주님과 함께 댄스하는 시간 인도 이해원 사모, 그룹중보기도, 그룹큐티, 워크샵 안전야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열방DNA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오전 강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최첨단무기 열방DNA로 세포번식

열방DNA 목회자세미나, 강사 임제택 감독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연합감리교회뉴욕연회 한인목회자 코커스가 공동주관한 열방DNA 목회자세미나가 임제택 감독(대전열방교회 담임·기독교대한감리회 제22대 남부연회 감독)을 강사로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뉴욕그레이트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13일부터 15일까지 임제택 목사를 강사로 DNA 부흥집회를 가진 그레이트교회 담임 양민석 목사는 “1991년 목사님 한 가정으로 시작한 열방교회가 현재 5천여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다”며 “열방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역사가 있는 교회로 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뉴욕에도 예수님의 DNA가 전이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사를 소개했다.

양민석 목사 사위로 뉴욕교협 총무 이은수 목사의 기도후 열방DNA 컨퍼런스 영상을 상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제택 감독은 자신의 목회사역 간증과 함께 DNA 컨퍼런스 대

해 소개했다.

임 감독은 무신론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에게 전도 받아 교회에 갔는데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수련회에서 성경을 받아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됐다며 전도사로 시골교회에서 가서 5, 6년을 사역하니 하나님께서 음내 교회로 옮겨주시고 열방교회 개척까지 인도하셨다고 간증했다.

임 감독은 “열방DNA는 프로그램이 아닌 양육 시스템”이라며 “전도는 해도 양육이 안되면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첨단 무기인 시스템(가치)로 세포번식을 시켜야 한다. 제직들을 모두 섬기는 자로, 직분에 맞게 헌신하는 전 성도의 사역화”를 강조했다.

임 감독은 이날 각 교제들을 소개하고 “교제는 양민석 목사에게 모두 주고 가겠다.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좋은씨앗교회, 임순웅 집사 백수 축하예배

뉴욕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가 지난 8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때 임순웅 집사의 100세 생신축하예배를 드렸다. 임용수 목사는 “교회 개척부터 9년여 가까이 특별히 아프실 때 외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시며 자리를 지켜주셨던 임순웅 집사님의 100세 생신축하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지금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아직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며 큰아들은 작년 한미총



효회에서 갖는 효자상을 타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좋은씨앗교회)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제 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 체육대회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김경일 목사)는 제 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체육대회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운고(시133:1)’라는 주제로 16 일 오전 10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경일 회장은 “사당동과 양 지캠퍼스에서 함께 비전과 사 역을 준비하며 우정을 나눴던 모든 총신 동문선배들이 함께 모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제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통해 총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며 주의 자녀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2개 팀으로

나뉘 축구, 피구, 훌라후프 돌리기, 족구, 500미터 혼성달레 이 달리기 등 종목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모인 동문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다.

비록 사역으로 인해 젊은 날의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며 우정을 나눴다.

한편 체육대회전 열린 개회예배는 박경일 부회장(76회) 사회로 시작, 남성수 부회장(신학 89회)가 기도했으며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동문들이 특송을, 김경일 회장(신학 84회)이 ‘합도(시 133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양종석 고문(신학 80회)이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베델한인교회 BAM컨퍼런스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삶터, 일터로부터 선교지까지!’라는 주제로 Business As Mission 컨퍼런스를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문의: (714)222-1244, (949)232-3963

전도사 모집

복음장로교회(담임 이광형 목사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는 유아 및 유치부 담당 전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신학교 재학 또는 졸업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중언어 우대)로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2부를 이메일(bogumk-gpc@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562)694-6214

제 14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

제 14차 이단대책정기세미나가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 주최로 2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베델레헨장로교회(담임 서종천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두날개’다.

▲문의: (323)823-0691

예정국제총회 목사안수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총회장 신승훈 목사) 목사안수예배가 21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525-0088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찬양과 간증집회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회장 박수잔 권사)는 찬양과 간증집회를 21일(토)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525-6700

은혜로교회 임직감사예배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22일(주일) 오전 10시45분 개최한다.

▲문의: (310)787-7766

오버플로인교회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오버플로인교회(담임 김충만 목사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2일(주일) 오후 1시에 열린다.

▲문의: (714)266-0268

가나안교회 임동운 담임목사 취임예배

가나안교회(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임동운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22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562)866-0980

‘사랑의 오픈 아이캠프’

LA한인들을 위한 무료 백내장 검사가 오는 9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웨스턴과 6가에 있는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550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비전케어서비스 웨스트(VCS West)가 주최하고 오픈뱅크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모든 한인들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검진결과 백내장 질환이 발견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추후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조성진 안과전문의와 리사황 안과전문의가 무료로 봉사한다.

▲문의: (213)505-2552 홍연아 총무



GIFT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수양회에서 리더이전 임상심리학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GMAN 월정기 선교사사랑방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우측아래는 이날 현 한일관계와 일본선교전망이라는 주제로 조남수 일본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눈으로 나와 타인 발견하기’ GIFT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수양회

GIFT상담치유연구원(원장 전달훈 박사)이 주최한 제 11회 새사람 전인치유 수양회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주제로 갓스펠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리더이전 임상심리학 박사는 “어떤 모임이나 삶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서 나와 갈등선상에 있는 자를 비난하게 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경 속 렌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 유형 및 기질, 과거와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 설명했

다. 전 박사는 “감정적 마음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에는 시간관념, 현재와 과거의 구분이 없으며 하나의 작은 부분이 전체의 감정을 불러낼 수 있고 이성적인 마음보다 훨씬 빠르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과 심리상태가 건 강한 자는 건강한 상대를 만날 수 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닥친 현 상들에 대한 인지 및 파악,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상대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우리교회 중공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복권서에서 김동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중공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샌디에고우리교회 복권서, 저자 김동문 선교사

샌디에고우리교회(담임 정득균 목사)는 ‘중공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복권서를 13일과 14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본 저서의 저자 김동문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4일 오후에 열린 콘서트에서 김동문 선교사는 성경의 배경이 된 중동지방에 있는 포도주, 만나, 메뚜기, 쥐엄나무열매, 백합화 등을 슬라이드로 소개하고 ‘성경에서 크고 작은 도사에서 떨어진 곳들 또는 광야라고 부른다’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나 유목민들이 드물게 있으며 이곳에는 뜨거운 햇살, 거센 바람, 높은 일교차, 부족한 물, 국지성 호우 그리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광야는 위험하고 끈고한 땅이며 돌, 모래, 바람, 먼지, 더위,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며 “물과 음식을 찾기 힘들고 밤이면 맹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냥을 다니는 곳이자 언제 전갈과 뱀이 독을 머금고 달려올지 모르는 곳”이라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

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며 “우편에서 그는 되시는, 그리고 낮이 해와 밤의 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찬양한 생명의 노래”라고 설명했다.

김동문 선교사는 “바알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는 이세벨에 쫓겨 도망간 곳은 광야였다. 그리고 찾은 곳은 로렘나무였다”며 “엘리야가 로렘나무를 찾아 선택한 것은 험이 아니었다. 로렘나무는 비참함의 장소였고 죽음의 장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야의 절망이 극에 달해 죽음의 장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며 “하나님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했던 엘리야와 함께하셨고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그들이 돼지고기 떡이 돼지고기 마실 생수가 돼졌다. 광야의 죽음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셨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현 한일관계와 일본선교전망’ 주제 GMAN 월정기 선교사사랑방모임

GMAN 월정기 선교사사랑방모임이 ‘현 한일관계와 일본선교전망’이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날 일본선교사 조남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조남수 목사는 구한말 국제정세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듯하다”며 “구한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일본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한국과 일본은 미묘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일본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과거가 있고 오늘날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일본인의 뿌리를 생각할 때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정착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DNA는 70%가량 일치한다”며 “일본은 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잃어버

린 형제 사마리아 땅이며 일본선교는 세계선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는 땅을 밟거나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어야 한다”며 “일본은 사도바울의 선교를 계승할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선교지로 밀집된 곳”이라 강조하고 “일본은 대동아전쟁을 통해 이웃나라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며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용서를 말할 때 일본은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선교에 대해 조남수 목사는 “일본선교는 스스로 가정교회를 세우고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크리스천은 0.4%이다. 선교사 재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지교회와 세계교회가 협력해 나갈 때 일본의 복음화는 진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해방 후 대한민국 1호 선교사인 최창열 선교사 93세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성서유니온선교회 히브리서 말씀산책세미나에서 민종기 목사가 개회예배 설교하고있다

“히브리서 핵심은 예수그리스도”

성서유니온 히브리서 말씀산책 세미나

성서유니온 서부지부 주최 히브리서 말씀산책 세미나가 16일과 17일 양일간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에서 개최됐다.

첫날 방동섭 목사(글로벌비전교회)가 히브리서 개요(1-6장)를 강의했다.

방 목사는 “히브리서는 에필로그를 보면 서신이라 생각되지만 신학논문처럼 보인다”며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고 있다. 배도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저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방 목사는 “히브리서는 헬라

어 문체가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대단하다”며 “150개 헬라어 단어가 다른 신약에서 쓰이지 않은 것들이고 그중 10개는 일반적 헬라어 문헌에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수준이 높은 자가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신칭의 사상은 히브리서에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 않다.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은 구원교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기록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권면은 상당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교 내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

론과 같은 것으로 이 서신은 긴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서신형식을 가미한 변형된 서신”이라며 “공동체를 향해 경고하고 권면하게 되는데 첫째 유대교로부터 개종했지만 옛 유대교적 전통에 머물렀고 둘째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제의적 종교생활을 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후 보이는 성전 의식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중심으로 드리면서 종교적 만족을 얻지 못해 흔들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 기독교를 떠나 본래종교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 적절한 권면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방 목사는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는 성전중심의, 제의적 종교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했다”며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잘 이해하면 이 서신을 잘 이해한 것이다. 그리스도 바로 이해할 때 다른 삶이 결정된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긴 신학적 논문과 함께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어떻게 가져 가야 할 것을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일룡 목사(로렘장로교회)가 1-3장, 신용길 목사(풀리산학교 부원장)가 4-6장을

강의했다.

16일 오후 5시 김진국 목사(성서유니온 미주서부 간사)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서 민종기 목사(성서유니온 미서부지부 사역위원장)가 ‘예수를 바라보자’(히12:1-3)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종기 목사는 “히브리서 핵심은 예수그리스도”라며 “지금은 예수그리스도 유일성이 흔들리는 포스트모던시대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 목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려면 믿음생활이 제대로 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건전함을 위해서다. 지금 시대 예수운동 보이는 자로 성서관에 남아 믿음의 단애 나는 싸움 계속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명 총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둘째 날은 김진국 목사가 말씀묵상과 나눔(QT이론과 실제) 시간을 가졌으며 방동섭 목사가 히브리서 개요(7-13장)를 강의하고 이상명 목사가 히브리서 7-10장을, 민종기 목사가 11-13장을 강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사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가을 교단총회에 참관단이 뜬다

기독교 시민단체, 총회 감시...예장 통합, 합동 총회도 모니터링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교단 총회를 감독하기 위해 참관단을 구성했다. 참관단은 명성교회 세습 등 현안이 산적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평화나무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병커1교회에서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교단 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지난 한 해 교단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 활동 방향에 대한 주요 현안을 검토, 결의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며 "민주적 원

칙에 입각해 진행돼야 하지만 현 상태를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는 "참관 활동을 통해 교단 총회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해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 더 나은 총회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004년 교단총회 참관운동을 진행했고 올해는 평화나무가 함께하기로 했다.

참관단이 주목하고 있는 총회는 오는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의 제104회 총회다. 예장통

합은 목회 대물림으로 논란이 있는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판단한 교단 재판관 결정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여부도 지켜본다. 예장통합은 지난 제103회 총회부터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할당제를 시작했다.

참관단은 또 23-25일 서울 총현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합동 총회에도 참석해 총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을 통해 많은 배움과 경험,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인들의 지도자 역량 개발에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세기총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기총 미얀마지부는 양곤 국립대학교 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기수별 종강 후에는 우수 수료자들을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하며 21세기 글로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기사제공: 세기총)

미얀마 양곤국립대 우수교수 초청 방문

세기총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4기생 중 선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미얀마 지부(지부장 김군배 목사)가 양곤 국립대학교와 공동 교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GLP 4기생들 중에서 우수 교수들을 선발해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했다.

세기총은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양곤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1명, 역사문화학부 교수 2명 등 3명의 교수(Dr. KHIN MYO WIN, Dr. MYO WIN NWE, Dr. MI WIN HTWE)와 리더십연구소장 김군배 박사부부 등 5명의 항공료와 호텔을 제공했으며, 세기총 본부와 세기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합동개혁 총회를 방문해 간담회와 만찬을 가졌다.

특히 한국방문단은 지구촌 코리아아시아포라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한 글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한국향 공대학교와 동국 대학교 등을 방문해 교류 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캠퍼스 투어를 하고 송도

국제도시 유엔기구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갔다.

세기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세기총이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3만여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선교사들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기총 미얀마 지부장 김군배 목사는 금번 한국방문

종교계·정부 손잡고

'자살예방지침서' 개발

개신교 등 종교계가 정부와 손잡고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 개발에 나선다.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공동위원장 김희중 박능후)는 10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대표 협의회를 열고 자살 예방 지침서를 개발, 배포하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는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를 이르면 이달 말 각 종교계 종단을 통해 배포한다.

기독교 측 집필 위원으로 참여한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

서 생명존중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종교계가 앞장서 자살 예방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침서에는 자살에 대한 성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는 내용과 예방 및 사후 대처 방법, 생명존중 의식향양 설교 예시문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침서는 자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목회자 이해를 높이고 베타 끝에 선 이들을 돕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 용기를 얻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기감, 감독회장 제비뽑기로 선출하나

금권선거 논란...임기단축과 장개위공청회 안전으로 공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제비뽑기 선거제가 통과될 경우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과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감은 '4년 전임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겸임제'나 '2년 전임제'로 전환해 감독회장에 집중되는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제비뽑기 선거제와 인기 축소 방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기감은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법에 따른 소송과 감

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제비뽑기 제도는 지난 5-6일 열린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기감은 다음 달 29-30일 안산 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장개위는 입법의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건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입법의회에 모두 상정된다. 입법의회에서는 토의 후 표결을 통해 헌법 개정을 결정한다.

기감 입법의회원은 500명이다. 연회 감독과 지역 감리사, 평신도 대표 등이 입법의원으로서 참여한다. 제비뽑기 제도의 경우

입법의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몇 명이 참석하든 상관없이 최소 334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기감에선 전통적으로 제비뽑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가 제비뽑기를 통해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입법의회 등을 포함한 몇 차례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남재영(빈들감리교회) 목사는 최근 한 언론 기고문에서 "장개위가 공개한 개정안 가운데 백미는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에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한 점"이라면서 "입법의회 전까지 금권선거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안건을 가다듬어 완성된 선거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학대 강사 설자리 더 좁아져

8월 1일 시행 개정 강사법의 역설

지난달 1일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으로 신학대 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신규 채용의 벽도 높아졌다. 경력 쌓을 기회마저 사라진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교수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16일 주요 신학대 등에 따르면 강사와 학교 모두 강사법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일반 종합대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신학대들은 강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기엔 부담이 크다.

강사법에 의하면 강사 채용 시 대학 측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해야 한다.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강사 경력과 논문 편수 등이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갓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학자들은 정량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신학대 A교무처장은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과 미

래 가능성을 보고 강사를 뽑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막 마친 이들도 강사로 임용되는 게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진학자들이 대학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보니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면서 "결국 강사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사법 시행 전 대학들이 강사 수를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 부담을 피하고자 대학들은 수년 전부터 강사 정원을 줄여왔다. 지난 5월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2개교의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 대학 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2만2397명 줄었다. 광주의 한 신학대의 경우 이 기간 무려 89.1%의 강사를 정리했다. 10명 중 9명의 강사가 대학을 떠난 것이다.

빈자리는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으로 메웠다.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은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수 요원을 말한다. 대학은 강사를 채용할 때 부담해야 할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학대들은 교회 담임목사를 임용 1순위로 꼽는다.

수도권 한 신학대 B교무처장

은 "강사 채용 절차가 복잡해졌고 4대 보험과 방학 중 인건비 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까지 커져 기타교원 등을 선호한다"면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위해 다수의 강의를 개설해도 수강생이 없어 폐강이 속속하는 등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 편법이 느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 사이에선 '보따리장수가 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따리장수'는 여러 대학에 출강해야 하는 시간강사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서울 감리교신학대 강사인 C씨는 "강사가 돼야 보따리장수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길이 좁아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주변에 박사과정생에 입학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

강사 주서택 목사, 김선화 박사

주서택 목사의 139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가 10월 3일(목) 오후 2시-5일(토) 오후 2시 사랑의교회 수양관(경기 안성)에서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주제로 열린다. 등록금은 20만원(식사, 숙박, 교재비 일체), 강사는 주서택 목사, 김선화 박사로 강의내용은 △내적치유를 위한 13개 과정 진행 △개인상담 및 소그룹 치유 모임 △회복의 찬양과 기도, 성찬과 고백치유의 시간 등이다.

▲등록처: 043-221-761, 231-010-2604-1761

딱딱한 신앙서적 '랩 영상'으로 홍보

근엄 내려놓은 출판계...유튜브 열풍 속으로

"존 스토트의/기가 막히는/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부터 스윗한 레너드 스윗/관계의 영성 났으니/신앙을 고민하는 분들/놓치지 말고 살펴보세요들."

음악이 깔리고 비트가 나오자 선글라스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한 남성이 등장한다. 이내 현란하게 손을 흔들며 귀에 박히는 랩을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독특한 점은 가사가 올해 상반기 출간된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색 영상의 제목은 '2019 IVP 상반기 출간 도서'다. 기독교 출판사 IVP가 사육이 있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를 배경으로 최근 제작했다. 영상에서 랩을 선보인 이들 모두 출판사 마케터다. 이들은 "삶이라는 여행길에 책은 친구. IVP 하나님 나라의 산책, 우리 삶을 기록하는 공책"이라며 출판사를 소개하는 가사로 랩을 마무리한다.

최근 기독교 출판계에 '유튜브 돌풍'이 거세다. 주요 출판사의 경우 대체로 회사 명의의 유튜브 채널을 보유 중이다. 자사 신간 소개나 저자 인터뷰부터 기독교·인문 분야 양서 소개까지 다양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홍보와 재미, 두 마리 토끼 잡기

활자에 익숙한 기독교 출판사들이 동영상 세상에 나온 건 영상 언어에 익숙한 독자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출판사가 펴내는 신학이나 신앙 서적의 경우 내용이 간단치 않고 분량도 많은 책이 적지 않다. 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잠재적 독자층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영상으로 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영상은 가급적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이 두 번째인 IVP의 랩 영상은 마케터가 주도해 만들

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작사·작곡에는 현직 래퍼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랩 라임(각운)에 신경 써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뇌리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가사를 썼다. 곡 녹음도 영상 촬영과 별개로 녹음실에서 해 랩 특유의 박자를 살리는 데 힘썼다. 마케터 이승용 간사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으로도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랩으로 내용을 풀어보니 문자 위주의 카드뉴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재밌게 전달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SNS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

앞으로도 책의 가치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상으로 구독자 수나 출판사 매출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을까. 이 간사는 "영상제작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의미 있는 영상을 쌓아 가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의 용도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기독교 출판사도 있다. 생명의말씀사는 '복 블레스 유'란 이름으로 유튜브에 어린이 신간 도서 및 다양한 종류의 성경 활용법을 동영상에 담아 올린다. '바이블 컬러링북'은 마케터가 직접 색칠하는 장면을 담고, '어린이 성경'이나 '군인 성경'은 어린이와 부모, 군인이 각각 영상에 등장해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는 식이다. 성경책 인쇄 공정 및 가죽 표지에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과정 등 쉽게 보기 힘든 광경도 공개했다. 최지연 생명말씀사 홍보팀장은 "교회학교 학생이나 집사 등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들이 나와 성경이나 책 홍보를 하는 영상이 반응이 좋다"며 "독자에게 책의 진정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의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아 출판사는 자사 책 홍보를 넘어 기독교 양서와 인문 서적을 추천하는 영상을 매주 1회 제작하고 있다. 출판사가 유튜브에서 운영 중인 '비아

채널(Via Channel)'에는 '슬기로운 독서생활'이나 '알거나 모르거나'란 제목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독서 생활을 돕는 내용이 올라온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돼 음성과 이미지로만 구성된 단순한 영상이지만 편집장 번역가 잡지사 기자가 책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 독자의 귀를 잡아끄는 게 특징이다.

기독교 출판계 협력도 모색해야

공식 유튜브 계정은 있지만,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 주된 원인은 영상을 만들어 올릴 만한 인력과 자금이 충분치 못해서다. 한 기독교 출판사의 영업팀장은 "기독교 출판사 대부분은 홍보팀이 별도로 없다. 영업팀이 홍보 업무도 같이 하는 식"이라며 "나도 그렇지만 지금 업무만으로도 벅차 다들 따로 영상 만들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타기 위해 기독교 출판계가 힘을 합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경찬 비아 편집장은 "우리가 팟캐스트와 영상으로 타사의 책을 소개하는 건 기독교 출판계가 다 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국내외 주요 저자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같이 제작한다면 출판사도 살고 기독교 출판계 전반이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션라이프)

"추수감사절 우리 추석과 맞추자"

올해는 11월과 9월, 두 달 차이

추석은 9월인데 왜 11월 셋째 주까지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야 할까.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나누는 날이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이따 보니 추수감사절까지 두 달 이상 벌어졌다. 추석에 맞추거나 가까운 기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장신대 총장을 지낸 문성모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는 10일 "초막절,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추석도 추수감사절"이라며 "예배의식은 문화고 문화엔 정답이 없다. 시대와 나라, 민족에 따라 예배문화를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다. 구약 속 과월절, 맥추절과 함께 3대 명절 중 하나다. 모두 감사절인데 과월절은 민족해방, 맥추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한 데 감사하기 위해 지냈다. 우리의 추석과 가장 유사한 것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갖는 초막절이다. 1년 중 가장 큰 절기다.

그러나 나라별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날짜는 다르다.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 미카엘의 날(9월 29일) 이후 일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다.

한국은 1908년 예수교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가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역경을 딛고 결실을 거둔 첫 수확에 감사하며 지낸 것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한국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맞추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추석은 음력이라 날짜가 매년 바뀌고 교인들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간다.

선교 펴기

헝가리

안녕하세요? 요사이 걱정과 우려가 많으시지요? 기도, 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자녀(또는 학생들,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미워하라"는 것도 가르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마음을 미워하느니라"(잠8: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Majestic God!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 선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기도와 헌금의 미션은, 부족한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소식과 기도제목

목을 사진과 함께 말씀드립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연관).

1. '어린이 사역'입니다. '회수 슬럼가'와, '소금과 빛 개척교회' 주일학교, '요셉 아틸라 고아원'에서...

2. 저희에게 셋째 손자(손녀) '인아'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자 '인수'는 3살입니다. 첫째와 셋째 손자가 저희 큰 아들의 자녀입니다. 둘째 손자는 '인호'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의 자녀입니다.

1991년 헝가리에 선교사로 왔을 때 우리의 나이가, 이제 저희 자녀들의 나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 수가 4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아들의 부부와 자녀로 9명이 되었습니다.

3. "거리의 교회"(화요일 남부역)와 "소금과 빛 개척교회"의 예배와 급식 사역



입니다. 4. 저희 예배당 정원에서 키운 무공해 포도를 추수하였습니다. 여니와 유디트 부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성찬식 때 쓸 포도주를 만듭니다.

"회수 슬럼가"의 조피 가족에게 임대주택 임주를 위한 Seed Money로 통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그 통장을 보고 한 두 달 안에 주택을 임대해줄기로 했고, 조피가 인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저희 부부가 존중받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마25:40)에서 나온 뜻입니다.

이 책을 읽고 경쟁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저자주매로, 책 한 권에 8,400원, 두란노몰/미국에서는 \$8.4, LA두란노/연락 카톡ID: hungarymom).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채플린 임상목회 (32)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급증하고 있는 총기 사망 환자

집에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막 마치고마자 트라우마 레벨 1 최응급 환자에 대한 문자가 쏟아지더니 응급센터에서 채플린 호출 전화가 왔다. 총사 환자이고 도착하자마자 CPR(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고 했다. 환자는 출혈을 워낙 많이 해서 결국 사망했지만, 가족 친척들이 연락을 받고 계속 모이고 그 와중에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은 이제 아예 익숙해져가고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경비도 심지어 사건 담당 경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온전히 채플린이 감당하고 수습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준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마침내 채플린에 다 모여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섭섭하고 풀지 못했던 응어리들을 다 토해내고 서로 용서하며 치유되는 시간을 통해 평온을 되찾는다. 마침내 CSI의 감식 조사도 마무리되고 가족들과 사망한 환자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의로 주차장까지 직계 유족들을 배웅하며 떠나보낸다. 그러다 보면 조처녀에 실려 온 환자가 유족들이 떠날 때면 훌쩍 자정이 넘기 일수다.

최근 들어서 모든 병원에 총기 사고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텍사스 지역 내에서만도 벌써 세 번째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개별적인 총기 사상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남부 바이블벨트의 메가처치 미국교회에서 개인별로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신자들이 무려 절반 가까이 집이나 자동차에 휴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과 자신을 무법자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총기 사용법을 배워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놀랐던 적도 있다. 요즘은 채플린이 마치 한국영화 '신과 함께'에 등장하는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또 죽음이 선포된 후 그들을 위해 이승에서 기도해주고 저승으로 떠나보내주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떠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매일 죽는 연습과 상상을 한다.

한국에서는 자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 체험 학습을 시키는 병원과 호스피스 단체들이 있다고 들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병원들이 많다. 1주간의 기본 훈련을 받은 후 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환경에서 스테프들을 도우며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교실 강의가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질병과 죽음과 싸우는 환자들과 스테프들을 통해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귀한 교훈과 경험을 얻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학생들이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 등의 피해자로 분장하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구조 헬기나 소방서 앰블런스가 와서 환자를 실고 병원에 도착해서 트라우마 팀이 마치 진짜 응급 사건 환자가 들어온 것처럼 모든 조치를 취하다가 환자가 사망했다고 선언한다. 그 때 대기하고 있던 진짜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 환자를 병실에 와서 보고 의사의 보고를 듣고 채플린의 위로와 기도를 받게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마치 진짜로 자기 자식이나 형제가 사망한 것처럼 감정적인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환자 자신도 자신이 마치 죽음을 경험하며 자신을 위해 애도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지정된 학생들로 하여금 비디오풀로 촬영 녹화하게 해서 다음 날 전교생이 강당에서 다 같이 감상하며 다시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로 하여금 느낌을 나누고 배우고 깨달은 교훈들을 적어보게 한다. 수많은 학교들이 지역의 종합병원과 함께 일년에 한 번씩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총기 사고의 예방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되면 자신과 남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출발도 한 영혼의 소중함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tdspark@gmail.com

SEED선교회 선교사자녀 장학금 수여

대학(원) 42명에 총 4만 2천 달러

SEED선교회(국제대표 권영복 목사/사무총장 장세균 선교사)는 지난 9월 1일 2019년도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SEED 소속 선교사 자녀 가운데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 42명(명단 생략)에게 각 1천 달러씩 4만 2천 달러를 수여했다.

SEED선교회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

감으로 성장해 다가오는 세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라고 판단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장학금을 받은 42명 가운데는 미국, 한국, 캐나다, 키리키스탄, 체코 및 일본에서 수학하는 11명의 대학원생과 31명의 대학생이며, 지난 2008년 11월에 장학금이 마련된 후 현재까지 350여명에게 장학금을 수

여한 바 있다.

한편 SEED선교회에서는 30주년을 앞두고 2020 SEED 선교사 대회와 초대교회 탐방을 2020년 2월 19일-28일 터키 셀축(에베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주제로 모이게 되는 선교사 대회와 초대교회 탐방에는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SEED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협력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회의 웹페이지 SEEDTODAY.org 혹은 SEED선교회(703-996-0717, seedintoffice@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SEED선교회는 북미주에서 시작된 선교사 파송기관으로 1990년 10월에 창립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Central Missionary Fellowship(CMF)와 1993년에 창립한 뉴욕장로교회의 Reach Out to the World(ROW)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6월 CMF와 ROW가 통합해 SEED가 탄생했다. 국제본부는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한국, 캐나다에 각각 본부를 두고 총 37개국 137가정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기사제공: SEED선교회)

우울증과 영적치유 (2)

(13면에서 계속)

결론

우리의 인식은 유리창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방안에 창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창문의 유리가 깨져야만 한다. 그 창문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고통, 아픔, 고난, 그리고 뒤틀린 생각은 창문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창문은

아픔과 뒤틀린 생각들로 인해서 흐려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수 있다.

우울증으로부터의 치유법은 모든 것을 깨끗한 창으로 보는 것, 또한 전에 보지 못

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치유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나는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삶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교회' (Eastern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branch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Includes sub-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영어로 보는 성경 (3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Micah 7:18,19

18) Who is a God like you, who pardons sin and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You do not stay angry forever but delight to show mercy.
19) You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you will tread our sins underfoot and hurl all our iniquities into the depths of the sea.

(NIV 1984)

WORD & IDIOM

* pardon: 사면하다, 관대히 봐주다 * forgive: 용서하다 * transgression: (범)죄 * remnant: 나머지, 잔유물 * inheritance: 기업, 상속재산 * stay angry: 성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 delight: 기뻐하다 * have compassion on: ~ 을 불쌍히(측은히) 여기다 * hurl A into B: A를 B에 던져 넣다 * tread: 밟아서 뭉개다(으깨다) * underfoot: 발밑에, 발아래 * iniquity: 불법, 죄악

GRAMMAR

18) Who is a God like you, who pardons sin and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who pardons sin 당신은 죄를 사하여 준다

and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그리고 죄악을 용서한다 나머지(의) 그의 기업(의) ⇒ 누가 당신과 같은 하나님인가요, 당신은 죄를 사해주시고 그의(당신의) 기업의 남은 나머지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까.

* <Who is a God like you, who ~>에서 (.) 다음의 <who>는 관계대명사로 앞의 <you>를 지칭하며 그리고 <you>가 누구인지를 <who> 이하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한다. * 여기서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는 하나님의 백성가운데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who ...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You do not stay angry forever but delight to show mercy.
당신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뻐하다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 당신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노하지 않고서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 이 문장은 <not A but B>의 용법, 즉 <A가 아니라 B하다>의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된다. <delight to show mercy>에서 <to show mercy>는 <show>의 목적어로 <To+V>가 사용되었다. <To+원형동사>의 To 부정사는 명사적(을, 틀), 형용사적(~한), 부사적(~를 위하여) 등의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며 <To+V>자체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to show mercy>에서 <mercy>가 <To+V>의 목적어이고 <to show mercy>는 <delight>의 목적어인 것이다.

19) You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당신은 다시 우리에게 대하여 연민을 가질 것이다

you will tread our sins underfoot and hurl all our iniquities into the depths of the sea.
당신은 우리의 죄를 발밑에 밟아 뭉개 짓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의 깊은 속으로 던질 것이다 ⇒ 당신은 다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의 죄를 발밑에 밟아 뭉개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 <have ~ on us>는 직역하면 <우리 위에 ~ 를(을) 가지다>가 되지만, 우리말 표현으로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영어식으로 생각하되 우리말은 우리말의 표현방식을 따라 많은 부분 의역을 해야 자연스럽다.

STUDY & THOUGH

■ 18절에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며 묻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신교적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된 본성과 의지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당신의 공의를 행하실 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 그러나 죄 자체는 바로 밟아 뭉개듯이 철저하게 멸절시키신다. 죄의 억제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The Lord is patient and compassionat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월 우리의 담력(히13:6-7)찬169장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첫째, 자신을 돕는 분은 주님뿐이심을 아는데서 옵니다(6). 사도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일수가 교묘히 공격해도 도우시는 분은 주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둘째, 인도자의 가르친 말씀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7).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의지함을 같은 것으로 믿는 것이 사도의 확신입니다. 교회의 사자인 설

교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를 때 담대해지나 말씀을 대적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신자는 인도자 신앙을 통한 증거를 볼 때 격려를 받아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믿음과 삶에 본을 보이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하며(7) 특히, 언행심사에 주님의 행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화 아름다운 신앙(히12:8-9)찬518장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에 영적 아름다움 곧 경건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 합니다(8).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어느 때라도 동일하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범사에 그의 주권을 인정함이 주안에 거하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겸손히 나아가 때 주님은 같길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거짓교회를 멀리하고

거기서 나온 육체적 일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9). 다른 교회는 언제나 육적 부패성을 자국해 교만과 탐욕으로 마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탄이 노리는 제일의 목표입니다. 셋째, 은혜로 연단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9). 세상의 것들로 굳어진 마음은 언제나 육적부패성에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 우리의 유일한 속죄제단(히12:10-13)찬183장

사도는 다시 구약성전 섬김과 비교해 새언약 백성의 복됨을 강조하되 그리스도 속죄제사의 영일함을 보였습니다. 첫째, 그 제단은 완전한 속죄제를 드린 그리스도 죽음의 사건을 가리킵니다(13). 구약의 속죄일에 행한 상징주의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을 지적하며 우리 신앙을 거기에 두게 했습니다. 둘째, 그 제단은 속죄제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이 제단의 본은 우리로 현실의 수욕을 짊어지고 주님에게로 나가게 합니다. 능력과 천국의 부요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속죄의 죽음을 볼 때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단의 제물로 살아갑시다.

목 우리가 드릴 산제사(히13:14-16)찬506장

천국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3가지 제사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항상 찬송함으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그 이유를 말하기를 삼위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을 찬송하며 교회가 영원히 부를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니다(엡1:3-18). 둘째, 선행의 제사입니다. 다음에 사도는 생활의 선한 행실이 성도가 드릴 제사라고 말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덕사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벧전2:9). 셋째, 구제의 제사입니다. 나아가 신자는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따라옵니다.

금 인도자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히13:17)찬197장

사도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면서 무엇보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와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전하는 말씀은 성경에 근거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말씀의 효력을 가져오기 위해 인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즐거움으로 섬기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거침들이 되지 말고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보사역을 잘 하도록 그들의 염려를 나눠야 합니다. 맡긴 양떼의 연합을 대신 지고 가는 목사의 고충을 서로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토 사도의 기도부탁(히13:18-19)찬482장

마지막으로 사도는 거짓교회에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해 자기사역에 기도로 협력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사역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사도는 모든 사역을 성도의 기도의 은사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권고한 사도는 복음전파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기도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바울 역시 성도의 기도의 은사로 환난 속에서의 구원역사를 고백했습니다(고후1:11). 둘

째, 그는 모든 일에 선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이란 그리스도 중심이며 그의 복음을 그대로 따라 지키는 생활의 적용을 가리킵니다. 그 탁월한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길입니다. 셋째, 선한 양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선한 양심의 소리여야 하고 선행 역시, 선한 양심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7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076(교우관) VIA DEI QUINT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6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2(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o.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안암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현리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5: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유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익산 고현교회 최창훈 목사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 끼치는 교회’

남미 아르헨티나제일교회(담임 최광언 목사) 집회 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익산고현교회 최창훈 목사를 만났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을 이룬 고현교회는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로 꼽히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와보니 한국부흥의 전성기였던 70-80년도를 보는 듯 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 성령의 역사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소감을 말하는 최 목사에게 고현교회의 부흥의 비결과 목회철학을 들어 보았다.

부임 이래 목회비전과 표어 통일

1992년 고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한번도 목회비전과 표어가 바뀐 적이 없다는 최 목사는 4가지의 목회 비전을 소개했다.

1. 평신도를 깨워 동역하는 교회, 2.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3. 천국일군을 양성하는 교회, 4.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을 갖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 또 전진’이란 표어를 이취하기 위해 교회 내적으로 제자훈련을 이어갔고, 밖으로는 단기선교에 포커스를 맞췄다.

단기선교는 많게는 120명, 적게 80-90명의 단원들이 매년 쉽 없이 단기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선교지는 러시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돌았는데 지금

은 미얀마 라오스가 열려서 그 쪽으로도 선교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단기선교팀은 주로 산지족 찾아가 의료선교, 성경학교, 현지어를 익힌 전도팀의 전도사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자비방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팀과 한국전통무용팀, 태권도, 이미용팀, 워십팀 등으로 나뉘어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집회를 열어 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선교팀 자신들도 은혜를 받으며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며 “성도들을 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성경대학, 교리대학 등 소그룹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이어간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승계 남아

최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

에서 칭찬 듣지 못하면 안 된다”고 단언한다. 최 목사가 고현교회에 부임하기 전엔 목회자가 2, 3년마다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성도들의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신 있게 교회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고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살아났다고. 담임목사도, 성도도 “우리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한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교회 내적 제자훈련과 교회 외적 단기선교에 목회 초점 맞춰 전진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 양육시스템으로 건강한 교회 세워

최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하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고현교회의 사역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가는 양육시스템을 통해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을 이루는 것이 고현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탁월한 양육시스템’이라고 귀띔하며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에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고현교회에서 사역 27년째를 맞고 있는 최 목사는 이제 아름다운 승계가 가장 큰 숙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시대변화와 함께 가는 것 같다. 교인들이 돈 맛을 너무 많이 알았다고 진단하고 싶다. 뭐냐 하면 상대성을 갖는 것인데 같이 있던 사람이 좋은 차 갖고 넓은 집 가지면 사람들은 극구 따라 잡으려고 애쓰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현상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일부 이탈된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서 교회의 안 좋은 면만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실된 주의 종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놓았다.

지역사회 영향력...감동 안겨야

최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르심의 확신은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 상실을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대형교회들이 사회에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은 말로만은 안 되고 감동을 시켜야 한다. 요즘에 ‘고객감동’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들도 계속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이들은 다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만 세워지면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회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진, 또 전진해야 한다.” 고 말을 맺었다.

(이성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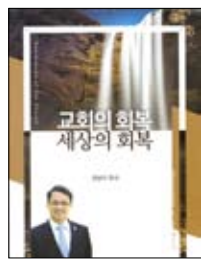


제일교회 회례행사에 참석하고 집회를 인도한 최창훈목사부부.

책소개

“교회의 회복, 세상의 회복”

저자 전남수 목사



을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고, 본질을 지키며, 예수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마침내 세상도 살리는 길이 된다”고 피력했다.

장 세상을 향한 나팔소리, 제 4장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제 5장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뉘 각 장마다 10여 편의 칼럼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목회 현장에서 연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수록했다.

본서를 추천한 최고선 목사(뉴욕서광교회),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김세환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 최병락 목사(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한결같이 ‘본서를 통해 건강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필독서’로 추천했다.

책 구입 문의는 미주지역 서점이나 davidnjeon@yahoo.com(저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상을 이끌어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록했다.

또한 “하늘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교회는 최악 된 세상을 살리는 시작과 끝이며 기준점이 되고 다림줄이기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본지 필자(“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신학교와 언론매체를 통해 강의와 글로 앞장서고 있는 전남수 목사가 자신의 칼럼을 묶어 ‘교회의 회복, 세상의 회복’(도서출판 열림)을 출간했다.

전 목사는 서문을 통해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편리와 편안함을 얻고 누리는 세상이 됐으나 참된 평안과 안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만이 가득하게 됐다”고 현시대를 직시하며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

우리의 왕 예수님

(13면에서 계속)

너희는 악할 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진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자증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바디매오라는 시각장애인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했으나 그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

수님은 3일을 단식하고 예복을 차려 입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전 앞에 섰던 에스더처럼 진실하고 간절함과 아울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왕 예수님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소원을 아뢰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다스리소서!”

pkwim529@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